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3年度 上半期 學術用役에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 합니다



일

研究機關 國防大學院 安保問題研究所

研究委員

責任者： 金 宗 輝

研究員： 崔 敬 洛 金 在 英 黃 炳 茂



目 次

序 論 .....	1
第 1 章 「아시아」에 있어서 4 強의 力關係 .....	5
第 2 章 4 大強國의 對韓半島政策方向 .....	17
가. 美國의 對韓半島政策方向 .....	17
나. 日本의 對韓半島政策方向 .....	29
다. 蘇聯의 對韓半島政策方向 .....	37
라. 中共의 對韓半島政策方向 .....	45
第 3 章 韓國統一에 對한 4 大強國의 逆機能과 順機能 .....	55
結論 및 對備策 .....	63



## 序 論

韓國統一은 南北韓의 政策과 力量을 包含한 內的 与件과 強大國의 政策과 相互關係를 主軸으로 하는 外的 与件에 依하여 그 向方이 決定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基本的으로 6者「게임」의 性格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南北間의 問題로 集約될 수 있는 內的 与件은 1950年代初의 軍事的 对決과 1960年末에 絶頂에 到達하였던 对立關係는 南北對話의 着手에 따라 새로운 段階로 徐々히 나마 轉移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南北關係가 새로운 段階로 접어 들었다고 하지만, 北韓이 變質되고 赤化統一의 野慾을 포기하지 않는 限, 基本的인 南北間의 교착은 解消될 수 없다.

또 南北對話의 着手을 契機로 하여 統一에 關한 內的 与件이 成熟되었다고 하더라도 亦是 韓國統一에 關한 關鍵은 強大國의 政策과 相互作用에 따라 決定된다고 할 수 있다. 1940年代末 이나 1950年代初의 韓國統一問題가 美·蘇의 政策과 合意 如何에 따라 決定될 수 있었던 狀況이라면, 이미 指摘한바와 같이 오늘날과 앞날의 韓國統一에 決定要件은 6者의 政策, 力量 및 相互作用에 立脚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關聯될 우리의 發言權과 影響力은 相對적으로 增大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南北間의 对立은 現在도 그리고 當分間 持續될 것이며 또 決定的인 時期에 있어 韓國은 美国에, 北韓은 中·蘇에 政治적으로 軍事的으로 依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強大國의 作用은 韓國統一에 決定的인 影響

을 미친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強大國의 韓國統一에 對한 作用에 있어 1970年代는 새로운 局面과 樣相을 가져 왔다. 卽 匪細匪에서의 對共封鎖에 決定的인 役割과 寄與를 하여온 美國은 「닉슨·독트린」의 「슬로간」下에 軍事的인 匪細匪化를 서두르고 있으며, 이와 併行하여 1972年 2月 「닉슨」大統領은 北京訪問을 通하여 劇的인 對中共和解를 試圖하고 5月에는 「모스크바」會議을 通하여 蘇聯과의 共存關係를 再確認·擴大하였다. 美國의 그늘 속에서 美國의 對外政策을 忠實히 追求하며 經濟的 實利에 執念되어 왔던 日本은 1972年 9月의 田中首相의 北京訪問을 通하여 美國에 앞서 中共과 修交하였으며, 對蘇對話 및 交流를 補充하려 하고 있다. 現在로서는 政治的 役割과 軍事的 寄與를 回避하고 있지만, 強力한 經濟力을 背景으로 한 日本의 匪細匪에서의 作用은 앞으로 相當한 波長을 이르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中共의 役割과 作用도 새로운 局面을 보이고 있다. 未曾有의 國內的 混亂과 外交不在의 現象을 自招하였던 文化大革命을 清算한 中共은 北方으로 부터의 威脅에 對處하면서 美國과의 和解와 日本과의 修交에서 찾아볼 수 있는바와 같이 國際的 地位의 向上, 對外的 進出의 擴大 및 政治的 影響力의 增大에 努力하고 있다. 獨逸問題의 “解決”과 宿願이었던 歐洲安保會議의 開催로 歐洲情勢의 定着 및 安定化에 初期的 目的을 達成한 蘇聯은 美國의 軍事的 後退 및 中共의 進出에 對備하여 對匪關心과 進出을 增大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1970年代에 접어들면서 새로이 展開되고 있는 強

大國의 關係는 韓國統一問題를 包含한 匪細匪의 將來에 새로운 作用을 하기 始作하고 있다.

本研究는 이와 같은 4大國關係가 어떠한 性格을 지니게 될 것이며, 이와 같은 4大國關係에 따라 4強의 韓國統一에 對한 政策은 어떻게 나타날 것이며, 또 이에 따라 이들의 作用은 우리의 統一에 어떠한 逆機能과 順機能을 보일 것인가를 檢討하고 이에 對한 對備策을 提示하는 것을 目標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第1章에서는 強大國의 政策決定의 환경적 條件이라고 할 수 있는 美·蘇·中·日의 4大國關係의 性格을 규명하고, 第2章에서는 이에 立脚하거나 이에 對한 4大國의 韓國統一에 對한 政策을 檢討하며, 第3章에서는 4大國의 相互作用에 따라 造成된다고 豫見되는 逆機能과 順機能을 分析해 보기로 한다. 끝으로 第4章에서는 主로 對外的 側面에 重點을 두어 우리의 統一에 對한 對備策을 提示하기로 한다.



## 才1章 亜細亞에 있어서의 4大 国關係의 性格과 様相

앞으로의 世界政治의 基本秩序는 美国, 蘇聯, 西欧, 中共 및 日本으로 形成되는 5角体制에 있다고 言及되며, 亜細亞의 秩序는 美·蘇·中·日의 相互作用에 立脚한 4強体制에 있다고 論及되고 있다.

「닉슨」大統領과 그를 補佐하는 「키신저」博士가 主張하고 指向한다는 亜細亞에 있어서의 4強秩序는 理論上으로 볼 때는 적어도 均衡된 力量과 均衡된 作用에 立脚되고 一方的인 同盟이나 對立을 排除한 境遇를 認定할 수 있다. 即 一般的인 4強關係의 模型은 均衡된 힘에 立脚한 相互 견제의 作用에 立脚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美国, 蘇聯, 中共 및 日本으로 構成되어 새로이 展開되고 있는 亜細亞의 4強關係는 基本的으로 4大強국이 各其 保有하고 있는 力量과 影響力이 差異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4大強국 사이에는 激烈한 對立과 比較的 緊密한 同盟關係가 存在하기 때문에, 現在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豫見될 수 있는 4大國關係의 相互作用과 様相은 一般的인 模型 보다는 變型된 「패턴」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첫번째의 理由로는 4大國이 保有하고 있는 力量의 差異에 새로이 展開되는 4大國關係에 그 基盤을 두고 있다는 것을 指摘할 수 있다. 戰後 亜細亞地域에 있어서 共產勢力擴張의 抑制과 沮止에 決定的인 役割을 担当하여온 美国은 越南에서의 政治的 苦戰을 契機로 이 地域에 對한 軍事的 寄與의 減縮을 서두르고 있

으며, 한편 西方勢力의 後退에 따라 造成될 수 있는 勢力空白의 占拠와 中共의 勢力擴張의 견제를 爲하여 이 地域에 對한 進出을 서두르고 있는 蘇聯의 影響力은 現段階에 있어 美國과 比肩될 수 없다는 評價를 할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美國과 蘇聯이 各其 政治大國이고, 經濟大國이며 同時에 軍事大國이며 特히 匪細匪의 政治的 將來와 軍事的 運命에 決定的인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다는 事實을 否定할 수 없다.

한 便, 中共과 日本의 力量은 비록 向上되고 있지만 美·蘇의 力量과는 絶對的인 意味에서 比較될 수 없다. 即 中共은 美·蘇 支配體制에 挑戰하여 이에 對抗할 수 있는 第3의 政治勢力의 形成과 領導를 바라고 있을런지도 모르지만, 實際에 있어 中共의 能力은 相當히 制限된 것이라고 評價하지 않을 수 없다. 中共은 龐大한 國土와 人口를 保有하고 있으나, 經濟力量은 微々하며, 核武器의 運搬手段의 開發과 完成을 서두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海外에서 近代戰을 遂行할 수 있는 軍事力量을 保有하고 있다고는 評價할 수 없다. 지난날에 比하여 中共의 國際地位와 發言權은 向上·強化되고 있으나, 北京의 力量과 影響力은 政治的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日本은 經濟的으로 世界 第3의 位置를 確保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나, 아직도 保有한 軍事力은 輕微할 뿐만 아니라 能動的인 政治的 役割의 担当은 現段階에서는 回避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美·蘇와 日·中共間의 力量 및 그 影響半徑은 兎로 顯著한 差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키신저」는 American Foreign Policy (1969)에서 “現代의 軍事力은 너무나도 巨大化

되었기 때문에 그 累積的 効果는 적지 않게 消失되었다”고指摘한 바 있으며 또 實際에 있어 強大國들은 核의 抑制作用을 考慮해서 政治的 目的達成을 위하여 軍事的 手段의 使用을 抑制하고 있는 것이 現實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4強体制의 成立이指摘되고 있다. 그러나 「칼 게이센」教授도指摘하고 있는 바와 같이 特別 軍事面에 있어서의 兩超大國과 餘他國家와의 力量의 差異는 當分間 오�히려 擴大될 것이 豫見되고 있기 때문에 嚴格한 立場에서 볼 때, 새로이 展開되고 있는 匪細匪4強의 關係는 不均衡한 力量과 影響力에서 出發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4大國間에는 過去에 比하여 活潑한 相互交流 및 協力關係가 展開되고 있지만, 이는 現存하는 同盟 및 對立關係로 限定的인 意味 밖에 지나고 있지 못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4強國의 相互關係라고 하면, 6個의 關係를 想定할 수 있는 바, 冷戰時代에 있어서는 主從의 軍事同盟을 基盤으로 한 美·日 및 中·蘇의 關係만이 密接하고 活潑하였다. 1960年代에 접어들면서 中·蘇對立이 理念紛爭의 次元을 벗어나 國家的 對立으로 擴大·深化됨에 따라 또 「쿠바」危機를 轉機로 美·蘇共存關係가 漸次 本格化되게 됨에 따라, 冷戰時代에 存在하였던 中·蘇關係가 美·蘇關係에 依해 代替됨으로서 4強國의 相互關係는 如前히 두 個의 關係만이 存在하였다. 그런데 1970年代에 접어들면서, 美·中共同의 和解와 이의 餘波는 日·中共同交樹立을 가져왔고, 日·蘇間의 關係定立의 契機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날에 있어 活潑치 못하였던 4強間의 相互關係는, 強大國間의 相互關係中 最惡

의 狀況으로 殘存되고 있는 中·蘇關係를 除外한다면, 政治的 關係가 正常化되고 經濟面에서의 交流가 劃期的으로 擴大됨으로서 相互依存性 마저 지닐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비록 相對的으로 相互關係가 擴大되었다고는 하지만, 日本과의 同盟 및 中·蘇間의 對立을 效果的으로 利用할 수 있고 利用하고 있는 美國을 除外한다면, 強大國間의 相互關係는 적어도 當分間 限定的인 性格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中共으로 하여금 4半世紀에 걸친 絶緣과 對立을 清算하고 “帝國主義의 總本山”인 美國과의 和解를 서두르게 하고 台灣問題를 “未解決”로 남긴채 美國과의 事實上的 外交關係를 樹立하게 만든 가장 큰 要因은 北方으로 부터의 威脅을 견제하자는데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 蘇聯으로 하여금 歐洲情勢의 安定 및 定着化를 서두르게 만들고 「닉슨」大統領의 越盟海岸의 封鎖라는 劇的 措置에도 不拘하고 豫定대로 「모스크바」에서 美國과의 共存關係를 再確認·擴大하고 戰略武器制限에 關한 1次的 合意, 相互均衡減軍論議로서 着手 그리고 擴大된 經濟協力을 摸索하게 만든 가장 큰 要因도 亦是 中·蘇對立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中·蘇間의 國境地帶에서의 軍事的 衝突은 小康狀態를 示顯하기 始作하였으며, 外交關係를 包含한 國家關係가 回復되고 國境會議도 再開되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이와 같이 中·蘇關係는 비록 理性을 되찾기 始作하였다는 局面도 없지 않지만, 國境地帶에 있어서의 雙方 軍事力의 增強과 繼續되는 雙方間의 政治的 論爭을 考慮한다면, 中·蘇關係는 強大國關係中 最惡의 狀況이라는 것을 否定하기는 困難하다. 따라

서 匪細匪 4 強關係에 있어 存在하는 두 強大國間的 對立關係는 4 強의 一般的 「게임」模型을 變形시키는 가장 큰 要因이 되고 있다.

最近에 이르러 世界 第3의 經濟大國으로 成長된 日本의 向背는 많은 注目の 對象이 되고 있다. 一方에서는 美·日間的 經濟競爭乃至 對立關係가 雙方間的 政治的 紐帶와 軍事同盟을 威脅하게 될 것이라는 評價를 하는 見解가 있는가 하면, 日本의 中共 또는 蘇聯과의 接近乃至 密着을 憂慮하기 始作하는 例도 없지 않다. 그러나 美·日關係의 惡化와 東京의 「모스크바」 또는 北京과의 接近에는 限界性 있다고 評價할 수 있는 여러 根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美·日關係를 考察해 보기로 한다. 日本內에는 美國과의 安保體制를 批判하거나 美國과의 經濟戰爭을 憂慮하는 觀測도 많지만, 日本內의 政治版圖에 劇的 變化가 일어나지 않는 限, 東京은 美國과의 紐帶를 外面할 수 없는 것이 現實이 아닌가 할 수 있다. 먼저 安保關係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美·蘇間的 核抑制力의 相互作用과 共存關係의 戰爭은 日本에 對한 蘇聯 또는 中共의 核改良 또는 在來式 武器에 依한 軍事挑発의 可能性을 顯格히 減少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日本이 非現實的인 非武裝中立을 追求하지 않는 限, 美國의 核雨傘은 便利하고, 經濟的이며 必要한 存在라고 할 수 있다. 美國의 核戰力은 共產威脅이 存在하는 限 必要한 것이며, 經濟的인 負擔을 考慮할 때 經濟的인 方便이며, 改憲이나 本格的인 再武裝을 하기 힘든 政

治風土를 볼 때 便利한 存在이기도 하다. 또 經濟的으로 볼 때, 美国의 对日態度는 日本의 反撥을 惹起시켰지만, 經濟大國 特히 貿易大國인 日本으로서 美国과의 經濟關係는 도저히 輕視할 수 없다. 即 輸出과 輸入에 있어 共히 約 30%를 美国에 依存하고 있는 日本으로서는 对美關係의 惡化 보다는 現狀維持가 보다 바람직한 方向이기 때문이다. 勿論 日本의 美国에 对한 自主性은 提高될 것이나, 基本的으로 日本으로서는 美国과의 經濟的 그리고 軍事的 紐帶를 持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日本의 中·蘇, 그 中에서도 中共과의 接近 乃至 密着 可能性을 檢討해 보기로 한다. 日本은 美国에 앞질러 中共과 修交하였지만, 中共과의 政治的 紐帶나 密着의 招來를 困難케 만드는 다음과 같은 諸制約이 作用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첫째로는 이미 指摘한바와 같이 既存의 美国과의 關係를 저버릴 수 없는 日本의 立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对中共經濟交流의 限界性을 생각할 수 있다. 中共이 未開發의 老대한 資源을 保有하고 있고 8億의 人口를 갖고 있지만, 個人당 所得이 80 ~ 90 弗인 中共으로서는 外貨의 制約으로 “無制限” 輸入을 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또 中共이 그와 같은 能力이 있다고 하더라도 中·蘇紛爭에 따른 蘇聯과의 經濟交流의 断絶로 쓰라린 經驗을 맛 본 中共이 日本을 包含한 어느 國家와의 편중된 經濟關係를 維持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消費財의 輸入을 크게 增大시키리라고도 期待되지도 않고 있다. 세 번째로, 日本은 对蘇關係를 配慮하지 않을 수 없는 立場에 있다. 激甚한 对立을 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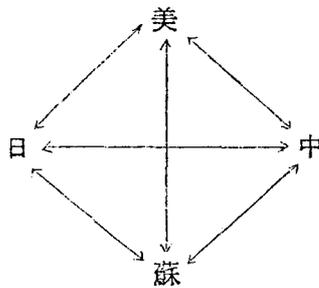
고 있는 中·蘇關係를 考慮할 때, 日本이 中共과의 過度한 接近을 試圖한다는 것은 蘇聯의 強力한 反撥을 招來할 것이므로, 日本은 對中共關係에 있어 蘇聯의 態度를 慎重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세번째로는 長期的인 日·中共間의 競爭關係를 생각할 수 있다. 中共의 對亞細亞進出의 主武器는 政治力量에 있는 反面에, 日本은 經濟的 側面을 내 세우면서 政治的 進出과 役割을 回避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長期的으로 볼 때 日本과 中共은 各其 經濟力과 政治力을 바탕으로 亞細亞地域에 있어서의 影響力 擴張을 둘러싼 競爭 乃至 衝突을 이룰 수 있다는 前提를 받아 드린다면, 日本과 中共은 協調者이라기 보다는 競爭 乃至 競合者의 立場에 서게 된다는 評價를 할 수 있게 된다. 끝으로 雙方은 體制와 理念의 差異에 不拘하고 共存을 다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體制上의 差異는 共存을 可能하게 만들지는 모르지만, 緊密한 協調의 阻害 要因이 될 수 있음은 勿論이다. 이렇게 볼 때, 日·中共關係는 外交關係가 樹立되고 經濟 및 文化交流가 擴大되고 있지만, 이것이 政治的 協力으로 轉移되기에는 많은 制約이 作用되어 그 限界性을 提示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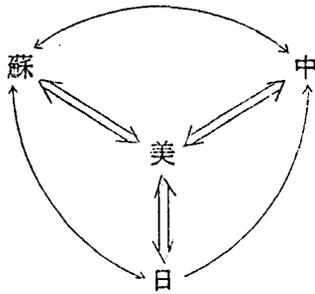
日本의 蘇聯과의 接近 乃至 密着에도 日·中共關係의 境遇와 마찬가지로 많은 制約이 作用되고 있다. 그 첫째로는 日本의 美國과의 紐帶關係에 있다. 即 安保面에서나 經濟面에서나 東京이 「워싱턴」을 포기하고 「모스크바」를 選擇할 수 없다는 現實은 自動的으로 日·蘇接近의 限界를 提示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中·蘇對立을 考慮할 때, 日本은 一方的인 對蘇接近을 推進할 수 없다

는 点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未解決된 平和條約 및 領土問題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宿題의 解決을 田中首相은 豫定된 「모스크바」訪問을 통하여 摸索하려고 있지만, 蘇聯은 日本이 要求하고 있는 “北方領土”問題에 있어 讓步를 한다는 것은 蘇聯指導者들의 演說, 諸聲明과 論評 그리고 中・蘇國境紛爭을 생각할 때, 現段階에서는 至極히 想定하기 困難하다. 끝으로는 亦是 中共의 境遇와 마찬가지로 体制과 理念의 差異는 日・蘇接近에 相當한 沮害要因으로 作用된다고 想定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日・中共關係의 境遇와 마찬가지로 日・蘇接近에도 好轉되고 擴大되고 있는 交流가 政治的 協力으로 轉移되기에는 限界性이 作用하고 있다고 評價할 수 있다.

이미 言及한 一般的인 模型에서 본 美・蘇・中・日의 4大國關係는 다음의 圖式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美・日間の 同盟關係, 中・蘇間の 對立 그리고 日本의 中共 또는 蘇聯과의 接近의 限界性을 考慮한다면, 現在 展開되기 始作하고 있고, 또 豫見할 수 있는 將來에 까지 持續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4大國關係의 樣相은 다음과 같은 圖式으로 表現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4 大國關係는 政治的 目的 達成을 為한 軍事的 手段의 可及的 排除, 對話와 交流擴大를 통한 協商의 維持·擴大, 勢力均衡과 相互牽制의 作用等を 통한 現狀國際秩序의 維持로 나타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4 大國關係는 中·蘇關係의 劇的인 好轉이나 日本의 政治版圖의 急變이 없는 限 持續될 것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美國은 美·日協力體制와 中·蘇對立을 利用하고 中共과 蘇聯과의 個別的인 對話와 協商을 통한 共存關係를 維持하므로서, 軍事的 寄與와 經濟的 負擔을 輕減시키면서도 匣細亞에서 強力한 政治勢力으로 存続할 수 있는 狀況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狀況 속에서, 各強大國의 役割은 어떠한 것인가를 檢討해 보기로 한다. 먼저 基本國際秩序와 核戰力에 關한 限, 美國과 蘇聯의 支配的 影響은 相當期間 持續되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中共의 核戰力은 相當期間동안 美·蘇에 對해서는 第1 또는 第2 擊力을 確保하지 못하는 反面에 美·蘇는 中共에 對해서는 第1 擊力 마저 保有하고 있다. 한 편, 日本의 技術的 水準과 經濟力은 相當한 核戰力을 保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開發에서

配備에 이르는 時間과 核武裝을 推進하기 힘든 国内 政治的 与件을 考慮할 때, 日本 亦是 이 部門에 있어서의 美·蘇支配体制에는 当分間 挑戰하려 해도 挑戰할 수 없는 立場에 놓여 있다.

通常武器에 依한 紛争에 있어서는 4大國中 美·蘇·中共의 影響이 支配的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美国은 「닉슨·독트린」의 宣布와 国内 政治的 与件으로 보아, 亞細亞의 地上戰鬪에 地上軍을 投入한다는 것은 特殊狀況을 除外하고는 一般的으로 想定하기 困難하다. 그러나 亞細亞에 配置되고 있는 美国의 海空軍力은 美国의 同盟國이 地上軍만 効果的으로 使用할 수 있다면, 侵略의 抑制와 沮止에 決定的인 役割을 할 수 있으며, 美国의 軍需支援能力 또한 通常武器를 使用하는 正規 및 非正規戰에 支配的인 影響을 미칠 수 있다. 蘇聯의 境遇, 特定한 事態를 除外하고는 直接的인 軍事的 介入을 試圖하리라고는 豫想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增強되고 있는 亞細亞地域配置軍事力 特히 海軍力과 軍需支援能力은 亦是 亞細亞에서의 非核武力紛争에 支配的인 影響을 미칠 수 있다. 中共은 海外에서 独自の인 近代戰을 遂行할 수 있는 能力이나 近大武器와 裝備를 供与할 수 있는 能力이 微弱하다. 그러나 龐大한 人的 資源을 保有하고 있는 中共은 陸統地域에 있어서 地上戰鬪에 介入하거나 非正規戰을 支援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非核武力紛争에 있어서는 큰 役割을 할 수 있다. 한 便 日本은 政治의 向方이나 軍事力의 構成으로 보아, 對外武力紛争에 直接介入은 積極 回避하려 할 것이며, 最大限 美国의 軍事作戰에 關聯된 間接的 支援以上の 役割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經濟的 側面에 있어서는 美·蘇·日의 役割이 支配的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美國과 日本의 經濟力과 役割에 대해서는 具體的인 言及이 必要없으며, 蘇聯의 役割은 지난날에 있어 主로 援助를 通하여 作用되었으나 通商 및 原料의 供給增大를 通하여 漸次 그 影響이 擴大될 것이라고 評價할 수 있다. 中共의 境遇, 經濟的 能力은 워낙 制限되고 있기 때문에 美·蘇·日에 比肩된 經濟的 役割의 担当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그리고 가장 重要한 問題는 政治的인 影響과 作用의 問題이나, 長期的으로 보아 日本의 役割은 增大될 것이겠지만, 日本 스스로도 政治的 役割을 回避하려는 傾向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餘他 國家도 日本의 作用에 警戒하고 있다. 美國의 境遇만 하더라도 越盟이 反對한다는 것을 口實로 越南休戰監視團에서 日本을 除外시켰으며, 中·蘇 特히 中共은 日本의 政治的 役割增大에 警戒 乃至 反對하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當分間(勿論 長期的으로는 經濟力을 바탕으로 한 日本의 政治的 參與가 不可避하게 되겠지만) 亞細亞의 政治的 主役은 美國, 中共 및 蘇聯 3 個國이 担当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와 같은 力關係를 基礎로 하여 強大國間에는 새로운 相互牽制의 關係가 展開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即 基本的인 東西關係는 그 強度가 弱化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持續되겠지만, 強大國 各其가 지니는 特定한 利害關係에 따라, 말을 바꾸어 表現하자면, 場所, 案件 및 時間的 要素의 配合에 따라 相互間의 새로운 提携 및 牽制關係가 形成·展開될 것으로 보인다. 越盟에 對한 支援原則

에 대하여 蘇聯과 中共이 同意하였지만 (勿論 具體的인 協調는 極히 低調하였다) 印度와 「파키스탄」간의 戰爭에 있어서는 美·中共 對 蘇聯의 對立狀況이 示顯된 것은 그 例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 中共의 過度한 對亞細亞進出에는 美·日·蘇가 共同牽制할 것이며, 蘇聯의 劃期的인 影響力擴大試圖에는 美·中共·日이 共同으로 協力 乃至 對処하는 狀況을 豫見할 수 있을 것이며, 日本의 軍國化 傾向에는 美·蘇·中共이 같이 反對할 것이며, 또 美·蘇의 支配體制에 對해서는 中共과 日本이 反撥을 하기 始作할 公算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새로이 展開되는 亞細亞에 있어서의 4大強國의 力關係는 熱核戰爭의 回避 即 現狀維持가 그 基本이 될 것이며, 過去와는 달리 陣營의 利益 보다는 國家의 實利를 重要視하는 脫「이데올로기」的 性格이 濃厚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展望된다. 또 이러한 自体利益의 守護 乃至 伸張을 爲한 手段도 過去에는 軍事的 方便이 主로 使用 또는 講究되었으나, 이제는 政治 特히 經濟的 手段의 使用이 보다 擴大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 才 2 章 四大強국의 對韓半島政策方向

### 第 1 節 美國의 對韓半島政策方向

太平洋戰爭時期的 美國의 對韓半島政策은 日本의 敗亡을 目前에 두고 戰後對策構想의 一環으로서 展開되었다. 그것은 ①日本의 弱体化 ②蘇聯의 對日參戰 ③韓半島의 國際政治, 乃至 戰略上的 考慮下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日本의 敗戰을 앞두고 美國의 最初로 戰後의 韓國問題에 關한 公式的인 意思表明은 1943年 11月에 發表된 「카이로」宣言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 이 宣言에서 聯合國側의 戰時指導者들은 “聯合國은 韓國民의 奴隸狀態를 考慮하여 適切한 時期에 韓國이 自由롭게 되고 獨立하게 될 것을 決議하고 있다”고 韓國의 獨立을 約束하고 있다. 그러나 獨立의 時點과 具體的 方案에 對한 言及이 없었던 이 宣言은 日本 植民地였던 韓國을 戰後에 分離·獨立시킴으로서 日本의 弱体化를 圖謀한다는 性格을 많이 지니고 있었다.

「루즈벨트」大統領은 이보다 앞서 韓國에 對한 聯合國信託統治案을 가지고 있었고 이 案은 “適當한 時期”와 關聯하여 몇가지 美國의 對韓政策의 背景的 要因을 고려한 가운데 展開되었음이 분명하다.

表面上으로는 韓國民의 自治能力의 欠如가 戰後 安定된 獨立·主權國家의 保存이 困難하리라는 理由가 있었지만 本質的으로는 ①韓半島의 國際政治的 意味와 各國의 利害關係, ②蘇聯의 對日參戰의 問題와 關聯되고 있다. 即 韓半島는 中蘇와 連接한 國家라는 點

에서 中·蘇가 傳統的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當時 協商이 推進되고 있는 蘇聯의 對日參戰은 蘇聯으로 하여금 韓半島內에서의 軍事作戰과 占領을 容認해야 되고 이것은 重大한 政治的 效果를 招來할 憂慮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點은 戰後 美國 極東政策의 大要가 領土的으로 統一된 獨立中國과 民主化된 日本을 美國의 支配的인 影響圈에 두려는 데 있었으므로 中國과 日本의 교두보적 位置에 있는 韓半島를 蘇聯의 單一支配下에 둘 수도 없는 形便이었다.

聯合國信託案은 當時 韓半島의 蘇聯의 對日參戰으로 부터 惹起되는 軍事作戰狀況에서 戰後에 招來될 重大한 政治的 結果 - 蘇聯의 單一支配 - 를 最小限으로 줄이면서 日本의 早期 終了를 促進시킬 수 있는 蘇聯軍隊를 極東에서 利用하려는 軍事的 側面과 政治的으로는 韓半島의 政治的 將來問題에 對한 蘇聯의 影響力을 牽制해 보려는 韓國問題 處理方案이라고 본다.

이러한 美國의 政策的 考慮는 오늘날까지 論議가 그치지 않은 38度線의 策定問題와 關聯된다. 過去의 通說은 美·蘇의 38度線 分斷占領은 「알타」會談에서의 美·蘇의 默契의 所産이라는 것이나 이 會議에서 이 問題에 對한 直接的인 論議가 있었다는 確實한 資料는 아직 없다.

「포츠담」會談에서 蘇聯의 對日參戰에 따르는 美·蘇間의 共同作戰地區設定問題에 있어서 日本攻略에 主力하고 있는 美軍의 位置때문에 韓國을 蘇聯의 作戰區域으로 내주게 된 點이 結果的으로 나중에 38度線을 占領 共同境界線으로 劃定하는 軍事的 事態를 招來

하였다. 그러나 政治的으로는 이러한 軍事的 考慮보다도 더욱 重要視한 地域 即, 中国과 日本에 對한 蘇聯의 參戰代價要求를 撫摩 시키기 위한 米끼로 韓國을 美國의 蘇聯牽制를 위한 極東政策의 犧牲物로 삼았을 可能性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

이로서 보건대 戰後處理構想의 一環으로서 나타난 美國의 對韓半島政策의 基本은 極東·北亞에 있어서 中国과 日本에 對한 緩衝地帶 乃至는 이 두 國家를 爲한 對蘇 恫정의 對象地域으로 存在한 것이며 韓半島自體의 政治的 將來問題 역시 第一次的인 問題가 아니었고 東北亞 全地域의 勢力均衡에 있어서 單一勢力支配의 排除라는 感覺에서 展開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終戰後의 美國의 對韓政策은 1945年 12月에 開催되었던 「모스크바」3 國外相會議를 中心으로 再強調된 信託統治案이었다. 美國으로서는 38 度線策定으로 생겨날 韓國의 國際政治的 問題에 對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蘇聯의 同意를 얻어온 聯合國 信託統治案으로 解決지을 心算이었다. 그것은 信託統治案만이 이미 韓國을 分割 占領한 美·蘇가 各者의 目的을 爲해 利用할 수 있는 政治的 道具로 남아 있었다는 面에서도 解釋할 수 있다. 「모스크바」三 國外相會議가 美國과 蘇聯의 兩占領軍司令部 代表者들간의 共同會議를 召集하여 韓國의 臨時政府樹立과 5年間の 4 個國信託統治問題 等에 關한 具體的인 論議를 한다는 것을 內容으로 하는 議定書를 採択하였다.

이러한 「모스크바」三相會議의 議定書에 根拠를 둔 美·蘇共同委員會는 1946年부터 1947年까지 信託統治案을 가지고 論議를 繼續

하였으나 合意에 到達하지 못하였다. 美·蘇共同委員會에 臨한 美國의 政策은 對蘇協調의 態度를 堅持하면서 南韓에서의 单独政府樹立計劃을 公式으로 否認한 立場이었다. 그러나 1947年 蘇聯의 世界赤化運動이 東歐를 비롯하여 「아시아」各地域에서 露骨化되자 美國의 對蘇協調의 態度는 더 以上 堅持할 수 없었고 韓國問題를 위요한 美·蘇共同委員會 역시 事實上 결렬의 危機에 直面하였다.

美國은 美·蘇共同委員會의 失敗와 蘇聯의 否定的 態度를 理由로 들고 韓國問題를 一方的으로 1947年 9月 「유엔」에 上程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美國의 政策變更의 背景에는 몇가지 重要な 美國의 對韓政策의 利害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即 美國은 韓國統一問題에 適切한 妥協을 獲得하기 위해 「유엔」이라는 世界輿論의 広場을 動員한다는 것, 둘째 美國이 韓國問題에 關한 独自の 行動을 取하기에는 韓國에 重要な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세계 戰略적으로 韓國은 重要な 存在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解釈할 수 있다.

韓國問題가 1947年 11月の 「유엔」總회의 決議에 따라 9個國代表로 構成되는 「유엔」韓國臨時委員團의 監視下에 南北韓總選舉를 實施하는 것으로 決定을 보았지만 北韓에 駐屯한 蘇聯軍 当局의 非協調로 1948年 5月 南韓만의 单独選舉에 依하여 大韓民國政府가 樹立되었고 1949年 1月に 美國은 大韓民國政府를 正式으로 承認하였다.

建國即後 美國의 對韓政策은 政治·經濟面에서는 外交的 支援과 經濟援助를 繼續하였으나 軍事的인 面에서는 韓國에 對한 戰略的

價値의 過小評價로 駐韓美軍의 撤収를 斷行하기에 이르렀다. 美國은 ①韓國內에 있는 美軍과 軍事基地는 微弱한 戰略的 價値밖에 없기 때문에 有事時에 兵力의 增強없이 維持될 수 없으므로 오히려 軍事的 負擔이 된다는 것 ②美國이 亞細亞大陸에 對해 攻勢를 加할 경우에도 韓半島를 거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그 主된 理由가 되었다. 이와 아울러 國際적으로는 美國의 對「아시아」政策의 基本이 되고 있는 中國과 日本에 對한 政策的 配慮와 國內적으로는 美·蘇가 韓半島內에서 緊張緩和를 爲해 同時 撤軍해야 한다는 蘇聯의 政治的 宣傳에 따른 韓國內에서의 一部壓力이었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美國의 「에치슨」國務長官이 1950年 1月 12日 台灣과 韓國은 美國의 極東防衛線밖에 있다는 發言을 하였고 이어 1月 19日에는 美國會에서 連繫中이던 韓國經濟援助案마저 否決됨으로서 韓半島情勢의 不安은 加重되었다.

韓國戰爭期間中의 美國의 對韓政策의 基本은 戰爭地域을 韓半島에 局限시키는 制限戰爭의 性格과 戰爭以前의 狀態를 回復한다는 現狀維持政策이었다고 要約된다. 그러나 戰爭期間中 美國의 重要政策 決定은 綜合的인 計劃없이 이루어 졌으며 現地 軍事事態의 變化에 따라 政策變更을 한 것이 두드러진 特徵의 하나이다.

韓國戰爭이 勃發한 即後 「에치슨」國務長官은 「유엔」軍이 韓國 戰爭에 參加한 것은 “大韓民國을 北으로부터의 侵略이 있기 前의 地位로 回復시키는 데에 唯一한 目的이 있다”고 言明한바 있다. 그러나 「유엔」軍의 仁川上陸作戰이 成功裡에 끝나고 戰勢가 突變하여 共産軍의 完全 崩壞가 目前에 닥아오자 美國의 戰爭目標은 變

化하기 시작했다. 即 美国의 駐「유엔」大使「오스틴」은 「유엔」에서의 演說을 通하여 “法的으로나 道義的으로나 38線이 存在해야 할 理由는 어디서든지 찾을 수 없다”고 言明하여 美国의 政策變更을 暗示했던 것이다.

그러나 中共軍의 介入으로 戰爭의 樣相이 突變하게 됨에 따라 「트루만」行政府는 ①戰爭의 擴大로부터 惹起되는 第3次世界大戰의 勃發 危險 ②西方同盟國 特히 英國의 擴戰反對 ③美国의 反戰與論 등을 考慮하여 戰爭目標을 38度線 以南에서의 侵略을 물리치고 原狀態를 復歸하는데 局限시키었다. 그리하여 美国은 韓國民의 뜻에 反對되는 停戰協商을 1951年 7月부터 共產側과 벌렸고 2年동안의 交渉끝에 53年 7月 板門店休戰協定이 成立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一聯의 政策展開 가운데 美国이 韓半島에서 戰爭에 介入하게 된 根本的 動機는 어디에 있는가? 이 點은 韓國이 戰略的인 面에서 大陸共產勢力의 南下를 沮止시킬 수 있는 地政學的 位置와 平和로운 自由日本의 安保에 韓國이 絶對的 價値를 지닌 前哨基地라는 면, 그리고 世界의 어느 곳에서나 共產侵略을 沮止해야 된다는 名分에서 었다고 한다. 이로서 보건대 韓國戰爭中の 美国의 對韓政策의 骨幹 역시 對日政策 優先主義下에서 展開된 느낌이 強할 뿐만 아니라 共產主義 赤化企圖를 世界 到處에서 沮止, 분쇄해야 된다는 自由圈 陣營外交의 틀 위에서 展開된 것이다. 이 點은 美国이 韓半島의 戰略的 評價에 있어서 韓國을 日本의 安保와 關聯하여 第2義的인 意味로 解釋한 것으로서 後日에 이르기까지 美国의 對韓政策의 骨幹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休戰以後 美國의 對韓政策은 韓美防衛條約의 結成으로서 東北亞集團防衛의 一軸을 形成하여 韓國의 防衛保障을 表明하는 反面, 統一問題에 있어서는 平和的 達成을 爲한 努力을 傾注하였다.

韓國統一問題의 平和的 解決을 위한 試圖는 1954年 4月에서 6月사이 韓國動亂 參戰 16個國中 南阿聯邦을 除外한 15個國代表와 共產側에서 蘇聯, 中共, 北韓의 代表가 參席한 「제네바」會議에서 이루어졌다. 韓國政府는 当初 北韓地域에서만 總選舉를 實施할 것을 提議했으나 共產側의 反對와 美國을 爲始한 參戰友好國의 懲罰으로 土着人口比例에 立脚한 「유엔」監視下의 南北韓 總選舉를 包含한 韓國統一에 關한 14個項目을 提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共產側의 非妥協적이고 否定的인 態度로 이 會談은 아무런 實效를 거두지 못하고 끝날 運命에 놓이게 되자 參戰國代表들은 共產側과의 會談不必要論을 들고 共產側을 非難했다. 그리고 「제네바」政治會談의 失敗로 韓國問題는 또다시 「유엔」으로 넘어 갔다.

參戰國側은 1954年 11月에 「유엔」事務總長에게 이에 關한 報告書를 提出하였으며 總會는 同年 12月에 統一되고 獨立된 民主韓國을 平和적으로 成就한다는 것을 「유엔」의 目的으로 決議했다. 그 後 韓國統一에 對한 美國의 政策은 韓國의 立場과 같이 上記 「유엔」의 統韓決議案 再確認에 歸着되어 이 問題는 年例的인 「유엔」上程에 그치게 되고 말았다. 당시 韓國統一問題는 「유엔」決議案의 範圍를 넘지 못하고 美國의 對韓統一政策 역시 「유엔」의 테두리 속에서 推進되었다. 그런데 1961年 所謂 「스티븐슨」案(北韓이 「유엔」의 權威와 機能을 認定하고 「유엔」의 決議를

遵守할 意思를 表明한다면 南北韓 同時 「유엔」招請이 可能하다는 것이 提起된 以來 「유엔」에 있어서의 韓國問題의 討議樣相은 質的인 變化를 겪게 되었다. 이 때부터 大韓民國政府만이 「유엔」이 認定한 唯一한 合法政府라는 美國을 爲始한 自由國家의 主張은 새로 大擘 加入된 亞阿 新生諸國과 非同盟主義國家를 끌어 들여 挑戰해온 共產側의 反對되는 主張을 꺾기 위해 많은 努力을 기울여야 했던 것이다.

1960 年代에 들어와서 美國의 對韓政策에 있어서 한가지 特記할 것은 오랫동안 難航을 거듭해오던 韓日會談의 成功的 妥結을 위해 美國은 많은 努力을 기울여 왔다는 것이다. 美國은 당시의 情勢判斷으로서 ①美·蘇間의 對立이 緩和되어 감에도 不拘하고 中共政權의 好戰的 強硬路線은 自由 亞細亞에 큰 威脅要素라는 것 ②極東에 있어서의 두 反共國家의 結束에 依한 對共戰線의 整備과 美國負擔의 減少 ③亞細亞에 있어서 日本役割의 增大 등을 重要視하였다. 그러나, 美國의 이러한 極東의 安保에 關聯된 韓日協力體制의 摸索은 두가지 側面에서 重要的 意義를 가진다.

첫째는 美國의 對韓政策方向이 40 年代末이나 韓國戰爭期間中에 보여 준 바 있는 對日重視政策의 一環, 即 日本防衛에 第一次的인 意義를 부여하고 있는 點에서 交함이 없다는 것이다. 美國의 對共產圈政策樹立에 상당한 影響力을 미치고 있던 「조지 케난」은 韓日會談이 한창 論議되고 있을 때, “만일 韓國이 美國의 對日政策을 妨害하는 存在가 된다면 결국 美國의 對韓政策은 再考를 免치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韓國은 重要하나 日本은 그보다도 더

重要하기 때문이다” 라고 言及했던 句節에서도 짐작이 간다.

둘째는 이러한 美国의 日本重視思考가 發展하여 美国은 韓国에서 漸進적으로 後退하고 韓국의 国防과 經濟開發을 日本의 軍事力과 經濟力에 結付시키는 即 日本에게 美国의 代役을 맡기는 方案을 考慮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60年代 後半 韓半島周辺情勢는 多元化 國際政治秩序 속에서 緊張緩和의 方向에서 國際的 利害關係를 協商을 통해 處理해 나가려는 狀況에 놓여 있다. 美国은 「닉슨」大統領이 執權하고부터 極東에서의 緊張緩和政策을 積極적으로 推進하여 美·中共接近이 이루어지는 等 오늘의 情勢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美国은 70年代 對韓政策의 새로운 方向을 摸索하게 되었다.

50年代와 60年代初에 이르는 期間동안의 美国의 對韓政策方向이 軍事的 側面에서 對共封鎖를 強化하는 가운데 展開된 現狀維持政策의 追求이었다고 한다면 60年代末로부터 70年代初에 이르는 美国의 對韓政策의 方向은 共產國家와의 協力과 交流를 통한 政治的 次元에서 緊張緩和를 追求하는 가운데 現狀을 維持하려는 感覺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美·中共接近을 追求로 하는 極東政治秩序의 變化는 이 地域에서도 極東對決이 止揚되고 現狀打破에서 現狀固定化의 方向으로 情勢가 움직여 가고 있는 現況下에서 美国은 韓半島에서 戰爭을 回避하고 多角的인 方法으로 緊張緩和를 摸索하고 있다. 그리고 美国은 이러한 緊張緩和를 爲해서는 韓半島의 分断狀態가 現狀대로 固定되더라도 좋다는 態度를 取하고 있으며 어떤 意味에서는 韓半島에서의 現狀凍結을 極東全般에서의 緊張緩和를 爲한 手段으로 利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美国의 立場에서 볼 때 韓半島가 「아시아」地域에 設定된 4強体制下的 秩序를 攪亂하는 事態를 防止하자는 것이다. 때문에

70年代에 들어서도 美国의 对韓半島基本政策은 戰爭抑制와 不統一이라는 두가지 方向에서 展開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韓半島에서의 戰爭抑制는 50年代의 強力한 軍事同盟体制에 依한 軍事的인 性格으로부터 70年代에 들어오자 緊張緩和에 依한 戰爭可能性의 減少라는 政治的 次元에 그 力점을 두고 있다. 即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는 政治的 次元의 戰爭抑制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美国이 基本的으로 追求하는 아시아秩序를 破壞할 可能性이 있는 戰爭勃發의 要因을 緩和, 乃至 除去할 수 있으므로 窮極的으로 美国의 韓半島 現狀固定化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美国이 韓半島에서 緊張緩和政策을 쓴다는 것은 具体的으로 駐韓美軍의 減縮 또는 撤収라는 方法으로 나타났고 对「유엔」外交에 있어서 두개의 韓國政府를 支持하는 方向으로 나타나는 것을 意味한다. 먼저 美国이 駐韓美軍을 減縮시키고 韓國政府의 政策方向에 影響을 미치려고 하는 方法을 쓰는 美国政策의 추이에서 美国의 緊張緩和政策의 性格을 究明해 보기로 한다.

첫째로 美国의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의 追求方向은 北韓의 存在를 除去하여 韓半島에서의 緊張의 原因을 除去하는데 두고있는 것이 아니라 韓國에서의 紛爭의 發生이나 增加를 美国이 願치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獨逸의 경우와 같이 南北韓의 分斷을 現實로 認定하고 協商에 依한 政治的 妥結을 바라고 있으나 南北間의 政治協商 自体가 韓半島에서의 單一勢力의 支配形態로 發展되는 狀況은 沮止하고 있다.

세계, 共産國家 特히 中共과의 緊張緩和에 韓國을 利用하고 있는 점이 없지 않다. 1971年中에 있었던 「닉슨」大統領의 中共訪問 決定과 同時에 美·中共和解 분위기를 反映하여 155마일 全休戰線 으로부터 美軍이 撤収한 뒤 韓國軍이 防禦를 担当하고 있고 同年 7月9日에는 5年만에 中共代表가 停戰委員會會議場에 復歸한 事實 이라던가 對中共 軍事姿勢變更의 一環으로 中共周邇에 있는 美國의 前進基地를 縮少시키고 있는 점 이라던가 1972年 2月 美·中共 共同聲明中 美國은 大韓民國과의 密接한 紐帶와 大韓民國에 對한 支援을 維持할 것이다. “美國은 韓半島에서 緊張解消와 對話의 增大를 摸索하는 韓國政府의 努力을 支援할 것이다.” 라는 聲明에서도 짐작이 간다.

끝으로 美國은 南北韓의 對立的인 共存關係를 單純한 平和的인 共存關係로 變形시킴으로서 美國을 一方으로 하고 蘇聯·中共을 他方으로 하는 共存體制에 南北韓을 編入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를 爲한 基本條件으로 美國은 ①中·蘇와의 韓半島 現狀維持를 爲한 諒解의 成立을 追求하고, ②北韓과의 對話 및 交流의 摸索을 通한 平壤의 好戰性 變質을 誘導할 것이며, ③韓國에 對해서는 外交的 支持와 紛爭勃發時 無條件 自動介入이 아닌 制限된 軍事支援을 할 것이며, ④南北關係 또는 交流의 內容을 文書化 할 수 있는 基本 條約의 必要性을 強調할 것이며, ⑤다른 分斷國家와 같이 南北韓을 同時에 「유엔」에 加入시키므로써 現在의 政治的 現實을 陽性化하여 國際機構에 凍結시켜 紛爭의 發生을 防止하는 同時에 韓半島의 分斷狀態를 尙當기간 동안 그대로 凍結시키고져 할 것이다.

이로서 보건대 美國의 對韓政策의 方向은 언제나 美國의 極東政策의 一環으로서 對日・對中政策에 從屬된 變數로서 成立된 것으로서 美國의 對日・對中政策의 手段으로 存在해 왔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過去 19世紀末에서 20世紀 初頭の 期間을 通하여 美國은 英國의 對露・對日政策에 便乘하여 對韓政策을 그 手段으로 삼았었으며 解放後 韓國動亂 以前時期에는 對中政策의 手段으로 對韓政策이 다루어졌으며 韓國動亂時에는 對日政策的 考慮에서 對韓政策을 樹立했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다시 對中共政策에 從屬된 政策으로서의 對韓政策을 構想하고 運用하고 있는 것이다. 特히 美國은 最近에 對中共接近政策을 試圖하여 中共의 憂慮를 減少시키려는 意圖에서 韓半島에서의 全般的인 緊張緩和政策을 쓰게 되어 두개의 韓國觀을 現實的으로 考慮하게 되어 韓國의 統一展望이 錯雜하게 뒤얽히게 되었으며 駐韓美軍의 漸進的인 撤収를 繼續할 뜻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 또한 韓半島 緊張緩和政策의 一環으로 삼고 있다.

## 第2節 日本의 對韓半島政策方向

日本外交는 大陸外交와 太平洋外交 그리고 世界外交의 세 갈래로 区分되고 있으며 大陸外交에 있어서는 漢民族과 中國과의 傳統的 關係를 無視하지 못하고 있다. 더우기 韓半島와의 關係가 가장 密接, 不可分の 重大事로서 日本의 安危는 항상 對岸인 韓半島와 直結된다고 보고있기 때문에 韓半島에 日本과 相反되는 勢力이 支配할 경우 日本은 安全이 威脅당하는 것으로 看做해온 것이 日本外交의 公理라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이 點은 韓半島가 大陸과 日本間의 橋梁이고 또한 地政學的으로 볼 때 日本이 美英海洋勢力圈에 屬하지만 歷史的으로는 韓半島, 支那, 「러시아」等 大陸地域과 密接한 關係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日本外交의 特異한 二重의 性格을 規定함을 말해주고 있다.

日本은 19世紀末부터 韓半島를 大陸進出을 爲한 교두보로서 삼아왔고 또 이를 爲해서 歷史的으로 상당기간 韓半島를 支配해왔으며 單獨支配가 不可能했던 20世紀 初에 있어서는 最小限 韓半島에 日本의 非友好的인 勢力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爲하여 소련과 分割支配내지는 緩衝地帶를 考慮한적도 있었다.

그러나 第2次世界大戰에서 敗北한 日本은 美·蘇의 戰後處理를 爲한 政策에 따라 韓半島에서의 모든 權益을 포기함은 물론 對外政策面에서 對美協調體制를 維持하게 되었다. 對美協調體制는 終戰後 美軍占領下에서 그 土台가 形成되고 吉田內閣에 依하여 體制化

되었다.

戰後 日本外交의 基本性格을 規定한 對美協調體制가 美國의 亞細亞 戰略의 一環으로서 形成되었다는 點은 重要的 意義를 지닌다.

初期 美國의 占領政策은 軍國主義日本의 解体에 目的이 있었으나 戰後 共產主義者들의 赤化功勞가 東歐와 亞細亞에서 露骨化됨으로서 나타난 「트르만」의 對共封鎖政策의 發動과 韓國戰爭, 日本政情의 不安 等은 美國으로 하여금 對日政策을 全面的으로 再檢討하게 이 르렀다. 即 美國은 亞細亞에서 對共封鎖政策의 一環으로서 日本의 再軍備와 亞細亞에 있어서의 日本의 政治, 經濟, 軍事面의 役割을 重視하는 가운데 美·日安保體制를 成立시켰다. 日本은 이러한 美·日安保體制위에서 自國의 防衛를 美國에 依存하는 한편 極東에서 共產主義國家와의 紛爭에 對해서는 美國의 對共產圈封鎖를 爲한 基地國家로서의 役割을 擔當하게 되었다. 때문에 2次世界大戰以後 50年代에 이르는 日本의 對韓半島政策의 基本은 美·日協調體制를 維持·發展시키는 過程에 展開된 性格이 농후하다. 獨自의인 意味의 對韓半島政策이라기 보다는 美國의 對韓政策의 基調위에서 展開된 受動的인 것으로서 韓半島의 南部만을 그 對外政策의 對象으로 삼을 수 밖에 없었던 당시 美·蘇支配體制의 冷戰外交의 狀況속에 있었다.

戰後 韓國이 日本과 交涉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51年 10月 韓國戰爭이 進行되고 있는 가운데 美國의 주선으로 개최된 “韓日 豫備會談”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당시 日本의 對韓態度는 關係改

함에 積極的이기 보다는 日本이 진 條約上의 義務와 對美協調體制의 維持라는 側面에서 觀測된 것이며 또한 韓國의 경우, 反日政治家 李大統領은 日本과의 關係改善에 消極的인 面을 벗어나서 否定的이었다. 日本은 1951年 9 月에 締結된 「센프란시스코」講和條約 第2條, “日本은 韓國의 獨立을 承認하고 濟州島 및 울릉도를 包含한 韓國에 對한 모든 權利 및 請求權을 포기한다”는 平和會議에 초청되지 않은 韓國과 直接交渉으로 많은 梟案問題를 處理해야 할 義務條項을 가지고 있었다. 더우기 美國은 對日平和條約의 締結을 前後하여 日本과 美國, 美國,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리고 美國과 「필리핀」의 諸國間에 3 個의 安全保障條約이 締結된 것과 關聯하여 이 韓日會談을 反共同盟을 目標로 發展시키고져 한 것이었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美國은 日本으로 하여금 基地國家의 性格으로 부터 亞細亞에 있어서의 日本의 積極的인 役割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日本은 憲法 第9條와 野黨의 항거, 經濟能力의 制限 등을 理由로 내세우고 亞細亞에 있어서의 美國이 바라는 積極的인 役割을 拒否하는 한편 在來式軍備強化의 必要性에 따르는 日本經濟發展을 爲한 功利的 外交姿勢의 默認을 美國에게 要求하였다.

即 日本은 美·蘇間의 核均衡下에는 在來式 局地戰爭의 可能性이 相對적으로 增大되고 있음을 指摘하고 在來式軍備強化로서 「아시아」의 安定勢力이 되기 爲해서는 日本經濟의 發展이 必要不可 欠한 것이라는 前提下에 美國의 經濟的 支援은 물론 對共產圈經濟交流의 名分

을 찾기에 이른 것이다. 여기에 戰後日本の 對美協調外交는 對美追從과 예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 나름의 功利的 打算政策에 立脚할 수 있는 契機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日本의 이러한 對美協調體制에 기초한 安保外交와 功利的 打算外交는 共產圈接近에 利用되어 鳩山內閣時에 中共(55年)과 소련(56年)에 接近政策을 시도하는 方便이 되었고 特히 中共과 北韓과의 政經分離原則에 依한 經濟關係는 해마다 增進되었다.

結局 日本의 對韓半島政策의 基本은 앞서 말한 對美協調體制的 維持를 一次的인 것으로 하면서도 功利的 對外姿勢를 절충시킨 것이라 하겠다. 때문에 이러한 兩面的 對外姿勢는 오늘날 國際政治의 多元化와 緊張緩和의 情勢에 對하여 한층 우리의 統一問題에 여러 가지 問題點을 提示하고 있다.

「스칼라피노」教授는 最近의 論文에서 日本外交의 功利的 側面을 強調하여 「美·日同盟의 그늘 밑에서 成長하면서 美·蘇間의 勢力均衡에 便乘하였고 中共과 接觸하면서도 「아시아」全域의 均勢關係에 있어서는 中共과 競爭關係에 있으며 越南戰爭을 反對하면서도 美國이 「아시아」에서 물러나지 않을까 憂慮를 하며 政治的 責務의 負擔을 回避하면서도 優秀한 軍備를 保有하고 있는」事實을 지적하였다.

原來 韓日關係는 共產主義의 威脅에 直面한 韓國의 國家安全保障이라는 觀點에서 促進된 것으로서 1965年 韓日間의 基本條約의 締結을 계기로 一次的 目標는 達成된 셈이다. 그러나 日本은 韓日基本條約 第3條에 對하여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第3條의 解

以上 韓國은 韓國이 韓半島에 있어서 唯一한 合法政府임으로 日本은 이 條約을 締結한 以上 어떠한 形態이건 北韓과의 關係를 가질 길이 封鎖되었다고 主張하는데 反하여 日本은 韓國政府의 管轄權이 미치고 있는 地域은 休戰線以南이고 그 以北까지 미치지 못하므로 北韓에 對해서는 아무런 拘束도 받지 않는다는 立場이다.

日本의 이러한 두개의 韓國政策은 中共에 對해서는 이미 既存의 台灣關係를 清算한채 國交樹立의 段階로까지 發展하였고 北韓에 對해서는 政經分離의 原則에 依한 貿易 및 民間·官吏「레벨」의 接觸을 추진하고 있다. 더욱기 日本은 이러한 政經分離의 原則에 依한 對北韓政策을 正當化하는 口實을 항상 極東의 緊張緩和와 日本의 國家利益에서 찾고 있다. 最近 日本外務省의 外交靑書는 中共問題에 言及하면서 “中共政府와 自由中國政府의 雙方이 다같이 中國全體의 主權者라고 하는 立場을 主張하고 있는 狀況下에서는 日本으로서는 中華民國과의 間에 外交關係를 維持하면서 中國大陸과의 間에 政經分離의 原則下에서 貿易을 비롯한 民間「레벨」의 接觸을 維持해가는 것이 極東의 緊張緩和에 기여하는 所以이며 또한 가장 日本의 利益을 維持할 수 있는 政策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어서 “政府(日本)는 長期的으로는 中共의 內外動向 및 國際情勢의 推移를 충분히 究明하면서 신중히 中共問題에 對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당분간은 政經分離政策을 계속해 나갈 方針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日本의 對中共 態度는 곧 이어 東北亞에서 發生된 새로운 情勢, 即 美中共接近에



前提로 한 것이다. 그러나 日中共接近에 따라 台灣條項의 意義는 現實적으로 喪失되어 있고 또한 日本의 對中共·소련緊張緩和政策의 一環으로서 極東條項의 縮小解釋은 물론 極東에 있어서의 紛爭事態에 基地國家로서 介入될 수 있는 危險을 적극 회피하고 있다.

最近 日本政府는 有事時 事前協議에 응하는 日本의 自由는 留保되어 있다고 公言함으로써 1969年 「닉슨-사토키」共同聲明에서 나타난 韓國의 安保는 日本의 安保에 緊要하다는 意味에서 連結되는 韓·美·日 軍事協力の 限界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日本의 亞細亞에 있어서의 軍事的 役割負擔을 회피하려는 面과 韓半島에서의 等距離外交姿勢는 그 背景的 要素를 對中·蘇關係의 配慮下에서 韓半島에서 緊張緩和를 一次的인 外交目標로 두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日本이 追求하고 있는 韓半島에 對한 等距離外交를 韓半島의 緊張緩和를 위한 努力이라는 主張에서도 짐작이 갈 뿐만 아니라 1.21事態 「푸에블로」호事件 등 韓半島에서의 緊張이 高潮되었을 때 日本政界에서 커다란 憂慮를 表明한 것이 라던가 美國의 有事駐留體制가 아직 美國의 輸送手段의 未發達로 因하여 有事時 日本의 中間基地의 必要性은 減少하지 않았다는 論評에서도 짐작이 간다. 또한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의 必要性을 高坂正堯教授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明治初期의 日本外交는 韓半島를 關心의 거의 唯一한 對象으로 하여왔으며 또 極東의 國際情勢가 第2次大戰後 5年을 經過하여 급격히 緊張한 것도 北韓의 南韓侵入을 契機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問題를 解決하지 않고는 極東의 緊張緩和는 있을 수 없다” 그는 또한 日本의 安全을 위하여 韓國은 台灣보다 월등하게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緊張緩和의 方法을 다음과 같이 提示하고 있다. “第一段階로서 韓國의 統一을 武力的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協定하고 이와 동시에 먼저 兩軍의 兵力을 凍結한다는 이른바 「백밀란 플랜」을 應用한다. 그후 一定期間에 있어서 兵力削減 또는 兵力分離가 可能하게 될 것이다.”

또한 神谷教授는 最近에 發表한 論文에서 韓國의 統一接近方案을 提示하는 가운데 韓國이 原色的인 民族主義를 統一概念에 適用할 것을 回避할 것과 東西獨機能的 接近論을 主張한 바 있다.

日本의 이러한 對韓半島政策論議와 추세에서 보건데 日本은 韓半島에서 戰爭可能性의 減少를 위한 緊張緩和를 第一次의 目標로 하기 때문에 韓半島의 統一問題 역시 緊張緩和의 角度에서 생각하고 있음으로 事實上 韓半島의 現狀維持를 前提로 하고 있는 것이다.

韓半島의 緊張緩和下の 現狀凍結이 日本의 對韓半島 功利外交의 展開에 있어서도 合當하고 또한 對美協調體制를 維持하는데 야기되는 日本의 紛争介入의 負擔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中.蘇와의 關係進展에 있어서도 韓半島의 緊張緩和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韓半島에서 이러한 緊張緩和가 南北韓分斷의 凍結을 別度化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分斷의 別度化는 軍事的인 면에서 中.蘇의 南進을 抑制할 수 있는 緩衝地帶의 設定이 可能하고 그 役割을 遂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日本

은 現在 設定된 對南北韓交流의 不均衡關係를 東北亞情勢의 추이에 따라 점차적으로 平準化시키려고 試圖할 것임은 물론 國際法的인 意味의 두개의 韓國을 陽性化시키려는 方向으로 나간다고 보며 經濟面에서는 韓國經濟의 日本化를 계속 추진하면서 北韓과도 경제교류를 증진하고 軍事協力은 經濟協力の 一環으로서 韓國防衛産業의 基盤이 되는 重工業分野에 對한 投資와 輕裝備의 販賣와 供與政策으로 나갈 것으로 본다.

### 第3節 소련의 對韓半島政策方向

소련의 韓半島에 對한 基本政策은 첫째로 歴史的인 傳統과 地政學的인 立場에서 帝政「러시아」以來 一貫되고 있는 南進政策이며, 둘째 「이데올로기」 또는 政治的인 面에서 추진되고 있는 所謂 世界共產化를 위한 赤化戰略의 一環으로서의 民族解放鬪爭支援政策이며 마지막으로 軍事戰略上的 重要性에서 韓半島를 極東前哨地나 安保上的 緩衝地帶로 維持함으로서 對西牽制는 물론 對「아시아」進出을 위한 교량으로 利用하려는 多目的 政策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련의 對韓半島 基本政策은 戰後 4半世紀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서 그 本質自体는 現今도 變化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政策을 遂行하는 過程上에 露呈되고 있는 對外行爲에는 流動性과 伸縮성이 수반되고 있음이 特徵的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소련의 南進政策의 構想은 第2次世界大戰中에 벌써 戰後處理에 있어서 韓半島를 占領, 赤化하려는 企圖에서 나타났고 韓半島의 北쪽만의 占領으로 韓半島全体에 對한 赤化가 不可能하게 되자 北韓政權을 使喚하여 武力的 赤化統一을 시도했던 韓國戰爭에서 完全히 露骨化되었다. 3.8線을 南北으로 美蘇에 依한 軍事的 分割占領은 그후 政治現實化되었고 그에 따라 소련은 完全히 北韓에서 소련占領軍을 背景으로 東歐에서 採択한 人民民主主義革命路線을 貫철하여 北韓의 全地域의 赤化를 서두르고 民族主義者들을 除去하였다.

그리고 美·蘇共同委員會가 서울에서 開催되었을 때 소련代表「스티코프」大將은 소련은 韓國이 “한개의 진정한 民主와 獨立國家로서 소련에 對해 友好的이고 그로 인하여 將來에 있어서 소련을 功擧하는 基地가 되지 않을 것”을 희망한다고 表明하는가 하면 信託統治를 反對하는 南韓의 團體를 臨時政府를 成立시키기 위한 協議에서 排除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서 韓半島 全体의 統一問題에 對해서 熱意를 보이지 않았다. 이 점은 소련이 이미 1945年 10月과 11月사이에 北韓에서 各地方人民委員會를 組織하고 民兵의 結成과 함께 1946年 5月 土地改革으로 北韓을 共產主義的 改組를 一次的으로 끝낸 이후이며 南北韓 臨時政府樹立이 可能할 경우 南韓의 民族主義者를 制去한 가운데 南韓을 共產化시킴으로서 全韓半島를 소련의 友好政府로 남겨놓자는 심산이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소련의 이러한 企圖는 貫철되지 못하고 韓國問題를 美國

이 「유엔」으로 上程하여 「유엔」에서 韓国統一案이 可欠되자 소련에게 不利한 「유엔」監視下의 總選舉를 거부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南韓만의 單獨選舉에 이어 大韓民國政府가 樹立되자 소련은 協商을 통한 南韓의 赤化를 단념하고 北韓을 사주한 武力赤化政策으로 轉換하게 된다.

1948年은 소련이 全世界共産主義運動을 지도하는 過程에 共産主義運動을 武裝鬪爭路線으로 轉換시킨 重要한 해였다. 「스타린」은 「칼카타」會議를 契機로 亞細亞地域 各國共産黨에게 武裝鬪爭路線으로의 轉換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指令에 따라 南韓의 共産主義者들도 武裝鬪爭을 展開하기에 이르렀으며 급기야는 南韓內에서의 不安한 政情과 美國軍의 철수를 契機로 北韓은 全面 南侵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豫測치 못했던 美軍을 주축으로한 「유엔」軍의 介入과 戰爭狀態의 轉換 卽 「유엔」軍의 北進과 中共의 介入 등이 소련의 安保에 危脅을 주게되자 現在 休戰線에 浴한 관찰상태를 利用하여 北韓에 休戰을 종용하게 되었고 소련은 既往에 꿈꾸어 오던 韓半島 赤化를 達成함으로서 韓半島를 소련에 友好的인 單一 勢力으로 支配하려던 野慾을 中止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問題는 韓国戰爭에 對한 소련의 態度이다. 「호루시초프」는 그의 回顧錄에서 韓国戰爭을 발발한 北韓의 支援에 對하여 消極적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消極性은 韓国戰爭을 위요하고 美國과 있을지 모를 對決을 회피하고 韓国戰爭은 바로

国内問題로서 内戰的인 性格을 지닌 것을 강조함으로써 金日成 自身이 처리하는 人民解放戰爭의 形式으로 處理될 것을 바랐다고 한다. 「 흐루시초프 」는 「 스탈린 」이 金日成의 戰爭도발에 對한 承諾과 同時에 소련 軍事顧問團을 撤收한 것은 韓國戰爭에 소련이 介入할 可能性을 排除한 것으로서 所謂 人民解放戰爭에 對한 소련의 支援態度는 地域共產主義者들이 소련의 安保에 위협이 움이 없이 전개하는 局地戰爭에 찬성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이 점은 바로 對韓半島政策에서 一貫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결국 韓半島에서의 金日成의 誤判에 依한 戰爭企圖는 소련을 비롯한 中共의 安保에 威脅을 준 것이기 때문에 中·蘇는 共히 休戰線을 中心으로 南北韓의 現狀維持를 바라게 되었다고 解釈되며 소련의 人民戰爭支援形態의 限界를 보여 준 것이기도 하다.

더우기 소련은 共產圈單一支配體制의 붕괴, 國際政治의 多元化, 中·蘇紛爭의 深化에 따라 民族解放鬪爭支援을 國際的 責務로 是認하긴 하나 그와 같은 責務移行만이 國利增進을 위한 唯一한 政策으로 看做하지 않으려는 傾向이 顯저해지고 있다. 또한 60年代初부터 번지기 시작한 中蘇對立은 급기야는 國家的 對立으로 發展하게 됨에 따라 北韓에 對하여 競爭的 支配關係에 留意하게 됨으로서 韓半島는 日本을 비롯한 對西方牽制는 물론 中共의 견제를 爲해서 安保上의 緩衝地帶로 維持할 必要性이 더한층 增大되었다.

소련의 對韓半島關與의 動機와 目的은 強大國間의 勢力均衡을 爲한 緩衝地帶로서의 活用과 軍事的 膨脹과 牽制를 위한 極東前哨地

帶의 掌握에 있다. 事實上 소련 中共 北韓 三角關係가 「이데올로기」나 實利面에서 調和를 이루었던 時期에 있어서는 마치 無風地帶를 달리는 密月旅行을 聯想할이만큼 順調로웠기 때문에 相互間에 對立과 競爭狀態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中·蘇間의 격심한 對立, 特히 國境紛爭으로 利害得失을 둘러싼 不調和關係와 對蘇帝制를 目的中의 하나로 中共이 새로운 政策轉換을 함에 이르러 소련은 對中共牽制를 目的으로 「아시아」集團 安保構想을 現實化하기 위하여 東南亞諸國에 柔軟的인 外交姿勢를 取하고 있다. 더우기 中蘇間에 戰爭이 발발할 경우 韓半島의 先占은 戰略的 價值面에서 先占者에게 有利함은 勿論 소련으로 보아서는 「시베리아」로 부터 길게 뻗은 보급로에 비하여 韓半島가 韓滿國境에 沿하여 있는 關係로 그 戰略的 價值는 더한층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北韓은 中共과 소련의 이러한 關係에서 自立路線을 내세우면서 “양다리 外交”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1970年代에 들어서서 中共에의 편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事實은 소련의 對韓半島關與政策에 制限的인 要因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中共은 韓半島問題에 있어서 北韓과의 關係조정은 물론 餘他 強國과의 政治的인 調整役割의 位置에서 소련의 對韓半島關與政策을 牽制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에 對해 소련으로서도 中共의 對韓半島영향력을 弱化시키기 위해서는 北韓과의 關係를 소홀히 할 수 없음은 물론 對美 對日關係의 調整을 통해서라도 中共을 牽制할 것이 기대되는 바 이 경우 韓半島에 있어서의 中蘇의 對立과 競爭은 南北接觸을 沮害시키는 要因으로 變質될 可能性이 있을지 모른다.

다음은 美·蘇平和共存体制의 維持와 關聯되는 韓半島의 立場이다.

美·蘇의 平和共存의 主要因은 [유럽]에서부터 서서히 除去되고 있으며 그것은 過去의 冷戰狀況下의 對決로 부터 協商이라는 次元에서 기반을 굳히고 있다. 비록 現時點에서 韓半島에서의 南과 北이 아직도 美·蘇와 各各 同盟關係를 維持하고 있음으로써 雙方同盟間에 韓半島에서 위협적인 事態惹起를 모두 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련의 立場에서 볼 때 韓半島를 今後의 對美和解政策의 交渉上 重要한 地域으로 看做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련의 對外政策의 一環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和解政策은 이미 「모스크바」共同声明의 “美·蘇關係原則”을 規定한 가운데 “國際緊張을 유발할 事態를 兩國의 힘이 미치는 限 防止하는 것이 兩國의 特別한 責任이다.”라고 宣稱하고 있음은 이미 韓半島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그리고 「닉슨」이 中共을 訪問하고 있는 동안 北韓外相 許淡은 「모스크바」를 訪問하였는데 여기에서 「브레즈네프」는 北韓이 1972年 1월에 提議하였다고 傳해지는 南北韓間의 戰爭終結案에 관한 提案을 支援했다고 보도되고 있으며 소련은 이미 오래전에 이러한 案을 北韓한테 贈與했다고 함은 앞으로 소련의 對韓半島緊張緩和를 爲한 政策方向에 示唆되는 點이 많다. 그리고 美國은 美·中共共同声明에서 韓半島에 關해 各其 相異한 立場을 밝히는 가운데 “韓國과의 現존하는 緊密한 紐帶를 維持하고 大韓民國을 支持한다. 韓半島에서 緊張을 緩和하고 接觸을 增大시키려는 努力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以上에서 보면 美·蘇 即 韓半島의 分斷과 對立에 歴史的인 責任이 있는 나라는 적어도 現在는 現在の 休戰條約이 보다 安全性

있는 또 美·蘇의 政治的 意思가 어느 정도 反映된 戰爭終結條約으로 發展하는 것을 希望하고 있다는 点에서 一致하고 있다.

특히 소련은 韓國戰爭으로 日本의 美国化에 對한 補償求得策으로 韓半島를 차지하려 했으나 美国의 反對로 이를 포기한 셈이며 中·蘇對立의 오늘날, 韓半島全体가 어느 한나라의 영향下에 들어가는 것은 서로 反對하는 立場이 되고 있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소련이 重要視하는 韓半島政策의 要因은 韓半島의 戰略的 價值에서 유래되는 点이다. 소련은 韓半島를 歷史的 으로나 또는 地政學的인 見地에서 戰略上 重要地域으로 認定하고 있는 바 韓半島에 關한 限 힘의 不均衡狀態에서 초래되어질 不安要因의 야기를 事前에 抑制 또는 저지하기 위해서도 韓半島를 緩衝地帶化시켜 餘他 強大國과의 政治的 調整上의 條件으로 提示하게 될 것이 確定視된다.

이로서 소련의 對韓半島政策 方向을 요약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련은 韓半島를 緩衝地帶 또는 極東前哨地로서의 重要性을 再確認하고 韓半島에서 紛爭이 일어나는 것을 願치 않고 있으며 可能的 한 現狀固定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現狀打破의 可能性은 排除되지 않고 있다. 이 兩者를 貫는 線은 韓半島에 利害關係를 갖는 強大國의 力關係에서 決定되는 事項이기도 하지만 傳來 共產國家로서의 世界赤化戰略은 拋棄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人民戰爭支援에는 소련안보에 위협되지 않는 線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北韓이 獨自的 戰略概念의 一環으로서 추진하고 있

는 人民革命戰略의 객관적 與件이 조성될 때 内部的 階級戰爭으로 발전되어 韓半島가 共產單一勢力에 의해 支配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묵인할 可能性이 크다. 그렇다고 在來式 全面南侵을 支援하기 위한 武器와 戰爭物資의 과도한 支援은 韓半島에서 軍事力 均衡을 깨는 要因으로 보고 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現在 추진되고 있는 南北對話를 緊張緩和를 위한 一連의 措置로 보고 관망하면서 南北韓 雙方間의 軍事力의 下向조정작업에 積極성을 띤는 물론 韓半島에서의 分斷의 制度化를 도모할 것이다.

이것은 먼저 南北韓間의 基本條約의 체결을 중용함으로써 南北關係의 先行條件인 戰爭없는 平和의 論理를 合理化시키고 이것을 美·蘇和解體制의 手段으로 利用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련은 南北間의 現狀凍結을 對日, 對中共關係의 相互作用을 조정키 위한 手段으로 利用할 可能性이 있으리라고 본다.

이로서 보건데 소련은 앞으로 70年代에 있어서 韓半島에서 現狀을 打破하려는 統一의 問題보다는 安定의 問題에 關心을 둠으로서 韓半島를 둘러싼 強大國의 利害關係를 安定된 方向으로 이끌어 나가리라고 전망된다.

#### 第 4 節 中共의 對韓半島政策方向

中共의 對韓半島政策方向의 規制要因은 「이데올로기」側面과 韓半島의 地政學的인 位置에서 야기되는 中共安保와 直結되는 側面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中共外交의 展開過程에서도 이 두가지 要因이 항상 交叉되었고 때로는 相衝되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가지 要因은 東北亞에 있어서의 強大勢力關係의 向背와 關聯하여 至大한 意味를 갖는다.

韓國戰爭은 中共의 立場에서는 韓半島内部的 紛爭으로 看做하고 北韓의 戰爭도발에 燃契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이 간다. 그러나 당시 中共의 對北韓戰爭政策支援은 間接的인 것이었지만 戰勢가 北韓側에 不利하게 作用하자 마지막 段階에서 韓國戰에 介入하였다. 이것은 앞서 말한 中共外交의 「이데올로기」的 性格과 安保의 側面的 限界를 보여주고 있는 點이라 하겠다. 卽 韓半島가 共產單一勢力에 依해 支配되는 것이 中共의 경우 가장 바람직스러운 일이나 그러한 現狀打破過程은 北韓의 单独的 힘으로 中共의 安保에 위태로움이 없이 展開되는 狀況下에서만 中共의 北韓共產勢力에 對한 支援政策이 可能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韓國戰에 美軍이 介入하고 戰勢의 不利로 北韓의 共產政策이 위태로움게 되자 中共은 國共內戰에서 겨우 政權樹立을 단행한 1년도 못된 어려운 狀況下에서 大規模의 兵力으로 所謂 抗美援助의 積極的 活動을 展開한 것이란 韓半島의 그 特殊한 地政學的 與件으로 말미암은 中共에 對한 戰略的 價值때문이라고 본다.

冷戰狀況下에서 中共이 가진 韓半島에 對한 利害關係는 美國의 對中共封鎖政策과 直接 關聯된다. 그리고 美國의 集團援助와 防衛라는 性格의 封鎖政策이 對中共問題에 直接的으로 적용된 것은 韓國戰爭이었다. 中共의 경우 中共의 安保와 死活的으로 關聯되는 것은 바로 美國과 台灣과 연결된 防衛條約이었고 다음이 韓半島의 休戰線에서 北韓과 直接 對決하는 美軍의 存在였다.

때문에 冷戰狀況下에서는 中共은 韓半島政策의 基本을 最少限 美·中共間의 對決을 間接적으로 緩衝地帶化 시켜주고 있는 北韓의 共產體制의 維持에 들 수 밖에 없었고 長期的인 意味에서 美軍의 철수와 그에 따른 韓半島의 單一支配라는 方向에 들 수 밖에 없었다. 中共의 北韓支援은 世界革命의 一環으로서의 價值를 지닌 共產地域이라는 意味에서 보다는 韓半島에서 直接的인 對美對決을 緩和시켜주는 地域으로서 지닌 意味때문에 強調되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中共은 또한 美國의 이러한 對中共封鎖網을 분쇄하기 위하여 對日政策面에서도 그 努力을 보인 바 있다. 中共은 可及的 日本을 美國의 영향하에서 分離시킴으로서 韓半島는 물론 台灣等 東北亞에 影響을 미칠 日美安保體制를 弱화시키려고 한 企圖속에 北韓을 이러한 對日戰略의 手段으로 利用한 바 있다. 即 日本의 政經分離原則을 北韓에 유도함으로서 事實上 두개의 韓國을 定立시키고 「유엔」에서의 韓國의 立場은 물론 美日安保體制의 韓半島에의 적용을 緩和시키려는 속셈도 이러한 側面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中共이 「아시아」에서 美國의 힘을 分散시키려고 한 의도때문에

北韓을 戰略적으로 利用하려고 한 事例는 越南戰爭의 경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965年 美軍의 強力한 軍事介入은 中共으로 하여금 對美 軍事的 直接對決의 危險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中共執權層에서는 有名한 戰略論爭이 일어났고 林彪의 "人民戰爭 勝利萬歲"는 당시 中共의 對美戰略方向을 設立시키기 위한 理論의 根拠이었다. 中共은 결국 美國과의 直接對決을 회피하고 越盟에 對한 完만한 援助를 提供해 줌으로서 歷史上에 나타난 所謂 民族解放戰爭은 궁극적으로 勝利한다는 信念 밑에서 越南의 共產主義者들이 國內戰爭으로서 勝利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中共의 對美戰略에는 두가지 無視 못할 特徵이 있다. 첫째는 美國과의 直接對決을 회피하기 위하여 越南戰爭이 越南內部的 戰爭이라는 인상을 주도록 소극적 援助를 하자는 것이며 둘째는 「아시아에서 對中共封鎖를 위해 活動하고 있는 美軍의 힘을 도처에서 分散孤立시키자는 것이었다. 첫째의 경우 1960年代에 들어서 中共의 「이데올로기」의 인 意味의 人民戰爭 支援形態에 限界를 보여 준 것으로서 오늘날 北韓의 所謂 革命戰爭支援에 示唆하는 點이 많다 하겠다. 卽 中共의 경우 強大國이 介入하여 中共이 말려들 지도 모를 狀況下의 人民戰爭은 支援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그렇다 고 階級戰爭의 本質을 추구하고 있는 地域共產黨의 人民戰爭戰略을 外面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둘째번의 特徵은 「아시아에서의 美國의 힘을 分散 孤立시키기 위하여 北韓을 利用하려 했던 點이다. 卽 中共은 1965年 北韓 側에 對하여 美國의 中共本土 侵入을 견 제하기 위하여 韓半島에서

抗美第 2 戰線을 形成하고 小規模 武力挑発과 南韓에 對한 危機조성을 획책했다는 것이다. 그때 金日成은 이를 거절하고 1966 年에 自主路線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나 그후 68 年에는 韓國에 1.21 事態와 「프에블로」호 拉致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러한 越南戰의 事態추이와 관련지을때 우연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中共의 韓半島에 對한 戰略的 價值는 韓國戰爭 당시나 1970 年代인 現在나 조금도 差異가 없다. 그러나 韓半島를 둘러싼 強大 勢力과의 關係양상에는 變化를 볼 수 있다.

첫 째는 韓國戰爭時로부터 直接的 武力對決關係에 있던 美國의 對 韓公約이 減縮一路에 있다는 것과 美國과의 和解에 따라 韓半島問題에 關한 協調와 妥協의 餘地를 갖게 되었다는 變化를 들 수 있다. 둘째로는 韓國戰爭時에도 中共은 韓國問題에 關聯하여 소련과 日本의 存在를 잠재적 競爭者로 認識하고 있었으나 당시에는 소련과의 「불록」關係가 強固했었고 日本을 政治的으로나 軍事的으로 競爭될 수 없는 地位에 있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이 두 勢力과의 韓半島를 둘러싼 關係가 顯示的 競爭關係로 變했고 相互 排除的이고 相互 牽制的인 것으로 變했다. 더구나 같은 域内國家인 日本의 새로운 政治勢力으로서의 登場은 中共에는 하나의 衝擊的인 事態發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韓半島에 關한 한 中共에 있어서 가장 큰 威脅이 되고 있는 것은 소련과 日本의 存在이며 美國은 後退하는 威脅이 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美·中共接近에서 야기되는 韓國統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로 한다.

美·中關係의 變化 卽 1972年 2月 27日 上海에서 發表된 共同聲明에서 해석할 수 있는 美·中關係는 첫째로 過去 韓國戰爭을 契機로 形成되었던 敵對關係를 止揚하는 作業을 시작했다는 點이 重要하다. 적어도 過去 20年間 美·中共間의 對立과 美國의 中共封鎖政策에 世界政治의 核心의 一端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美·中은 匹차가 가지는 社會體制와 理念의 차이를 초월하는 共通의 利害關係가 있음을 確認하였다. 또한 美·中共이 다같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世界政治는 霸權政治가 없는 平和5原則에 따르는 共存의 原理가 支配하는 社會였다. 이러한 表現은 적어도 美·中共이 「아시아政治」에 있어서 現狀을 維持하고 緊張을 緩和한다는 一般的인 原則에 합의한 셈이다. 물론 越南, 韓半島, 台灣 및 對日 政策에 있어서 相異한 表現이 있기는 하였으나 基本的으로 相對方의 立場에 挑戰하지 않는다는 原則에 입각함으로써 美·中共은 앞으로 制度와 理念 및 具體的인 「아시아」의 諸問題에 대한 相異한 利害關係에 얽혀 있으나 보다 큰 새로운 世界秩序의 形成 또는 維持라는 面에서 共通의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前提下에서 美·中共 共同聲明에 나타난 韓半島部分은 各 各 相異한 立場을 밝히고 있으나 共通的인 要素를 찾을 수 있다. 卽 美國은 韓國과의 現존하는 긴밀한 유대關係를 유지하고 大韓民國을 支持한다. 韓半島에서 緊張을 완화하고 接觸을 增大시키려는 韓國의 努力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中共은 北韓의 所謂 平和統一方案을 강력히 支持하며 「언커크」의 解体要求를 支持한다

고 하였다.

여기에 나타난 特徵의 하나는 美·中共은 각기 韓半島에서의 直接的인 立場의 표시를 하지않고 각각 南北韓의 현재의 努力 또는 要求를 支持한다고 한 点이다. 이것은 美·中共이 直接的 軍事的 對決을 한 한반도에서 적어도 對立的 利益의 直接的 추구가 없음을 시사하고 있는 点이다.

이와 아울러 周恩來가 1971年 8月 「레스톤」과의 會見에서도 " 韓國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南北韓이 서로 화해를 해서 平和的인 統一을 할 수 있는 方向으로 어떤 方案이 모색되어야 한다 " 또 " 休戰協定이 있을 뿐이지 아직 平和條約이 없다 " 느니 한 表現에서도 中共은 韓國問題의 解決方法으로 南北韓의 現狀維持를 보다 安全하게 하는데 있는 것같은 印象을 준다. 그리고 美國의 立場은 中共이 駐韓「유엔」軍과 「언커크」解体問題를 「유엔」에 上程시키지 않게 하는 方法으로도 韓半島에서 中共과 協議해서 戰爭終結措置를 서두를 可能性이 있다.

다음 中共의 對韓半島政策方向에 規制要因은 現在 對日關係面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中共은 美國의 「닉슨·닥트린」에 따른 「아시아」에서의 漸進的 後退와 關聯하여 그 代行役割을 日本이 할 것이라는 前提下에 日本의 軍國主義復活에 對하여 심각한 우려를 表明하고 있다. 1970年 4月 平壤을 방문한 周恩來는 1969年 11月の 「닉슨·사또」會談을 신랄하게 批判하면서 佐藤政府에 의한 방대한 豫算規模의 防衛計劃 推進을 들어 日本軍國主義의 復活을 하나의 現實問題라고 斷定했던 것이다. 周恩來의 「레스톤」記者와

의 會見에서도 다음과 같이 日本의 軍國主義復活의 憂慮를 韓半島에 關聯하여 指摘하고 있다.

" 韓国問題는 日本의 軍國主義라는 問題와 關係되어 있다. 만약 事態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日本은 韓國條約을 利用하여 美軍이 철수하자마자 바로 韓國에 介入할 것이다 "

" 만약 極東의 狀況이 緊張緩和으로 進展되고 日本이 韓國과 台灣에 對한 侵略의 野心을 포기한다면 그때 日本과 中共은 平和共存 5原則에 立脚한 相互不可侵條約을 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그후 「닉슨 周恩來」會談에서도 日本에 關한 問題는 가장 深刻한 關心事의 하나로 討議되었을 뿐 아니라 上海共同聲明 가운데서도 中共側은 " 日本軍國主義의 復興과 外向的 膨脹 " 에 단호한 反對를 表明했고 同時에 日本이 " 独立的 民主的 平和的 中立日本으로 되어야 할 것이라는 希望을 強力하게 다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日本의 새로운 動向에 對한 中共의 対応은 이미 修交3原則과 平和5原則에 對한 合意를 기초로 하는 日中國交回復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中共의 政策的 対応에서 나타난 試圖는 무엇보다도 東北亜地域에서의 日本의 새로운 軍事的 役割 구축의 誘因을 弱화시키고 그 구축의 tempo를 鈍化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한가지 注目할 만한 事實은 日·中共同聲明에서 美日安保體制에 對한 言及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바로 中共에게는 美·日安保體制에 의한 受動的 日本이 美國의 軍事的 役割을

代行할 수 있는 能動的이며 積極的 日本보다는 바람직하다는 認識  
위에서 政策을 展開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周恩來의 「레스턴」記者와의 會見記에서도 찾아 볼 수 있  
는 바이지만 적어도 앞으로의 韓半島에 對한 利害面에 있어서도  
日本이 美國보다 더 깊숙히 介入될 수 있는 素地를 우려하고 있  
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 점은 歷史적으로 볼때 1984年 日淸  
戰爭으로부터 韓半島에 排他的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日本이 1904  
年의 日露戰爭을 勝利로 이끌면서 점점 滿洲에 들어왔던 過去の  
日本の 膨脹主義的 政策을 돌이켜 본다면 周恩來의 日本의 軍國主  
義復活에 關聯된 韓半島의 戰略的 價值評價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視角에서 볼때 韓半島에서의 美軍의 철수가 表面的인 宣  
傳的 主張과는 달리 中共의 希望에 부합되는 것이 아님을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韓半島에서의 美軍의 철수가 이루어질 경우  
그것은 日本의 軍備擴張을 크게 자극하는 계기를 줄뿐 아니라 韓  
美日 軍勢力 分業關係라는 現存關係를 韓日軍事協力關係로 促進시키  
기 때문이다. 中共에 있어서 北韓의 存在가 安保上 緊要하듯이  
日本에도 韓國의 存在는 安保上 緊要한 것은 疑心의 餘地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論理는 中共이 韓半島政策方向을 결정하는 경우 日  
本과의 競合關係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본다.

다음은 소련의 對韓政策方向에서도 지적한바 있으나 60年代 深化  
되기 시작 중·소紛爭의 角度에서 본 北韓에 對한 中共의 利害面  
이다. 冷戰體制下에 소련이 共產陣營의 主導勢力을 維持했던 時期

에 있어서는 北韓에 對한 中·蘇의 競合關係는 表面化되지 않았다. 그러나 中·蘇紛爭이 單純한 「이데올로기」對立으로부터 國家利益의 對立, 급기야는 國境紛爭으로까지 발전되자 現在 中·蘇의 北韓에 對한 利害相衡 내지는 競合關係는 마치 19世紀末의 淸國과 「러시아」가 韓半島에서 展開했던 競合關係를 방불케 하고 있다.

現在 中共의 對韓半島政策에서 나타난 對蘇關係의 局面에서 보면 北韓에 對한 蘇련의 영향력을 極小化시키는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서 보전대 中共의 對韓半島政策方向은 對美, 對日, 對蘇關係의 側面에서 把握되어지는 性格이 짙다고 하겠다. 그런데 中共이 이러한 3大勢力과 緊張緩和를 바라고 있고 3大勢力의 利害關係가 韓半島에 密接한 것이 오늘의 現實일진대 中共爲主의 現狀打破라는 政策方向의 추진은 어려운 일이다. 中共은 現在 강대국의 韓半島에 對한 이러한 利害關係를 충분히 알고 있다. 때문에 中共은 韓半島에서 現狀을 定着시키는 것이 現狀打破보다는 中共의 利益에 더 기여할 수 있다는 判斷이 中共의 對韓半島政策에 점점 뚜렷이 作用하고 있으며 적어도 1970年代를 통하여 그러한 現狀維持政策이 크게 동요할 可能性은 별로 엿보이지 않는다.



### 第 3 章 韓國統一에 對한 4 大強國의 逆機能과 順機能

가. 統一에 對한 우리의 基本的 前提

韓半島는 地理的으로 東南西가 바다에 둘러싸여 있고 北쪽에는 鴨綠江을 國境으로 하여 하나의 韓國을 形成하고 있으며 人種, 民族, 言語, 歷史, 風俗, 文化面에 있어서 單一性을 지니고 있고 南北의 經濟는 相互補完의 性格을 띠우고 있다.

이와같이 民族單位로 統一된 國家·社會를 形成했던 韓民族은 第 2 次世界大戰後 美·蘇兩國에 依해 韓半島가 南北으로 分斷되면서 서로 容納할 수 없는 思想에 依한 統治體制를 南北에 定着했다. 그리하여 各其 제나름대로 韓半島의 統一을 指向하고 있다.

6.25 에 全軍事力을 動員하여 南侵을 恣行한 北韓은 赤化統一을 窮極的 統一目標로 設定 繼續 이를 追求하고 있다. 한편 우리는 平和的 統一을 指向하여 朴大統領의 8.15 宣言을 契機로 南北對話에 「이니셔티브」를 掌握하므로서 段階的으로 이를 推進하고 있다. 우리가 指向하는 平和的 統一은 韓民族이 民族의 同一性을 回復하고 統一된 自由民主主義國家·社會를 韓半島全域에 平和的으로 建設하므로서 政治, 經濟, 文化的으로 統合하는데 있다.

## 나. 統一에 對한 4 強態도의 綜合的 評價

美·蘇·日·中共은 韓半島에 關係되는 利益에 따라 바람직한 統一과 그것이 不可能한 境遇에 代置될 可能的 狀態를 各其 追求하고 있다.

美·日은 韓半島의 統一을 大韓民國에 依한 平和的으로 韓半島全 域에 統一된 自由民主主義國家·社會의 成立을 바람직한 것으로 看 做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와 反對로 中共과 蘇 聯은 北韓에 依한 赤化統一이 北韓의 軍事力行使에 依하지 않고 自國의 影響力下에 있는 統一된 共產主義國家·社會의 成立을 바라 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形態의 統一은 南 北自体에 가로 놓여 있는 各其의 立場이 判異하고 또 4 大國 自 身들이 各各 韓半島와의 關係에서 提起되는 安保上에 미치는 影響 要因과 國家利益이 서로 衝突하기 때문에 現實的으로 바랄 수 없 는 것으로 判斷하고 있다고 評價된다. 따라서 4 大國은 이와는 다른 可能的 狀態의 追求를 指向하는 態度를 取할 것으로 判斷할 수 있을 것이다.

即 勢力均衡構造속에서 緊張緩和를 追求하고 있는 4 大國은 巨視 的으로는 南北韓의 어느 一方에 依하여 韓半島에서 戰爭이 再發되어 戰爭에 휘말려 들어감으로서 일어날 可能性이 充分히 있는 全面戰爭의 誘發을 忌避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微視的으로는 戰爭에 介入함으로써 必然的 으로 甘受해야할 人的, 物的 犧牲 및 負擔과 國際輿論의 惡化로 惹起된 孤 立化를 回避하고 있다. 이에 따라 4 大國은 韓半島에 있어서 各其 追求 하는 安保와 國益에 抵触되지 않은 次善의 可能的 狀態를 “韓半島의 現 狀固定化”로서 設定하여 이를 追求하고 있다는 것으로 判斷된다.

다. 統一에 對한 4 強의 逆機能과 順機能

(1) 逆機能

前述한 바와 같이 4 大國이 指向하는 對韓半島 現狀固定化 政策의 追求는 "緊張緩和"를 그 主眼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韓半島에 있어서 南北韓의 单独的인 武力 侵攻乃至는 偶發的인 戰爭勃發을 抑制하고 現狀을 維持하자는 것이다. 即 事實上 두개의 韓國을 認定하므로써 緊張緩和를 追求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같은 4 強의 韓半島統一에 作用하는 機能은 軍事的 統一이라는 側面에서 볼때 武力의 行使에 依한 解決에는 "逆"으로 機能하게 될 것이다. 美·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中共과 蘇聯의 境遇에도 美·中, 日·中間 및 美·蘇, 日·蘇間 協調體制가 形成된 狀況下에서는 武力의 行使에 依한 全面戰爭을 手段으로 하는 統一의 達成에 對하여는 이를 沮止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波及될 危險한 狀況은 이를 感知한 北韓이 諸与件이 보다 굳어지지 전에 单独的으로 速戰速決에 依하여 制限·局地戰의 形態로 武力 侵攻을 敢行할 可能性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政治的 統一이라는 側面에서 볼때 4 大國과 南北韓이라는 6 者 「게임」을 考慮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4 大國은 國際的 緊張緩和追求의 平和共存 「게임」을 벌리고 있다. 이 4 者 「게임」은 亞細亞에 있어서 印支半島 紛爭地域과, 南北韓 및 越南·越盟의 分斷國家問題에 直接的으로 影響을 미치고 있다. 어떤

紛争地域 또는 分断国家問題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그 当事者들이 이 4者「게임」에 參考하게 된다. 南北韓의 境遇도 그러하다.

따라서 韓半島에서의 6者「게임」을 想定하여 統一에 作用하는 機能을 分析하고자 한다.

美國과 日本은 韓國과 政治·經濟·軍事的 紐帶關係를 가지고 있고 한편 中共과 蘇聯은 北韓과 美·日의 對韓國關係와 同一한 紐帶關係를 맺고 있다.

이 關係는 冷戰構造下에서는 南方3角關係 및 北方3角關係로 指稱되었다. 그런데 日·中共間의 國交樹立과 美·中共間에 있어서 事實上의 國交關係樹立으로 美·日 對中共의 協調關係가 成立되면서 뚜렷했던 南·北方의 3角關係는 漸次 무너지기 始作한 것이다. 더우기 中·蘇對立의 持續性向이라는 外的 與件과 더불어 南北對話의 開幕이라는 內的 與件은 그 迫車를 더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美·日·蘇·中共은 各其 紐帶關係를 가지는 南北韓과의 關係에서 軍事的인 面보다는 政治·經濟的인 面에 力點을 두는 傾向으로 흐르고 있다. 그리하여 軍事的 緊張의 排除에 第1의 優先順位를 設定하는 同時에 4者「게임」을 平和共存的 現狀維持라는 狀況속에서 自國의 安保와 利益을 最大로 追求해 나가고 있다. 비록 6者「게임」이라고 하지만 4大國이 벌리고 있는 「게임」과 南北韓間의 2者「게임」은 그 追求하는 目標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또 南北 2者「게임」에 있어서도 北韓이 武力挑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誠意의 表示와 証拠를 提示하지 않고 있는 狀況속에서는 眞正한 善意의 「게임」을 벌릴 수가 없는

決定的인 問題를 內包하고 있다. 따라서 4 大國이 벌리고 있는 「게임」을 北韓이 破關시킬 수도 있고 우리가 破關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4 大國의 「게임」에는 勝者도 없고 敗者도 있을 수 없다. 다만 勝者나 敗者가 될 可能性이 가까워졌다는 것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크들에게 있어서 決定的인 勝因이나 敗因이 된다고는 判斷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統一의 過程에서 惹起될 緊張要因의 爆發(自發的이건 偶發的이건간에)로 全面戰爭化되므로서 決定的 打撃이나 被害를 입고 国力의 消耗 乃至는 敗衰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과는 달리 우리에게서 勝·敗의 兩者択一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4 大國의 統一에 對한 態度는 緊張이 緩和되고 現狀維持에 依한 分斷된 平和의 確保以上の 것은 바라지 않는다는 것으로 歸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4 大國 「게임」은 우리의 統一指向 過程에 對하여 두개의 韓國을 既定事實化하고 固定化하는 "逆"의 機能으로 作用하므로서 結果的으로 統一政策을 統制하는 "逆"의 方向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 (2) 順機能

우리의 平和的 統一은 南北對話를 始發點으로 하여 한겨름 한겨름 그 実績을 쌓아 올려가고 있다. 그러나 이 過程은 中·短期的으로 解決될 수 없는 것이고 보면 長期的으로 忍耐와 꾸준한 國民 總和的 努力과 有備無患의 態勢를 갖추어 나가면서 解決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4 大國은 軍事的 統一의 側面에서 北韓의 武力行使에 依한 再南  
侵을 抑制하는 最小限의 抑制機能은 發揮할 수 있다고 보겠으나  
单独的, 制限·局地的인 北韓에 依한 戰爭遂行을 沮止할 수 있는  
機能을 最大限 發揮할 수 있다고는 判斷할 수 없지만 그러나 戰  
爭을 手段으로 하는 赤化統一의 野慾達成이 現實적으로 매우 커다  
란 犧牲과 代價를 支拂하여야 한다는 危險負擔感을 그들에게 안겨  
주었다는 點에서 보면 「順」의 機能을 作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政治的 統一의 側面에 있어서 4 大國의 「順」의 機能은 長期的  
인 統一에의 道程에서 閉鎖的이며 金日成唯一思想으로 굳어져 있는  
北韓社會의 開放과 融解를 이르기게 할 可能性을 完全히 排除할 수  
없다는 點에서 考慮될 수 있을 것이다.

即 美國이나 日本에 依한 對北韓 接近은 自由의 물결을 直接的으로  
北韓社會에 흘러 들어가게 하는 效果가 있다는 것이며 間接的으로는  
美·日의 對中共接近에서 일어날 中共의 變化에 衝擊을 받을 수  
있고 또한 美·日의 對蘇交流에서 일어나고 있는 蘇聯社會의 變化에  
影響을 받아 北韓社會의 變質現象이 徐徐히 일어날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順」의 機能의 作用에서 우리가 警戒하여야 할 것은  
특히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接近에 있어서 우리에게 先行하는 接近이  
다. 우리에게 先行하는 對北韓接近은 北韓의 戰力增強에 直結될

素地가 充分히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北韓 自体가 偽裝된 平和攻勢로 美·日에 接近하므로서 戰力增強을 期하는데 逆利用하는 心算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以上과 같이 韓國統一에 對한 4大國의 "逆機能" 과 "順機能" 에 對하여 言及하였다. 이에 對備하는 우리의 對備策을 다음에 提示하기로 한다.



## 結 論 및 對 備 策

1970年代에 접어들면서 本格的으로 展開되기 始作한 亞細亞의 4強의 力關係는 韓國統一에 새로운 局面을 投影해 주고 있다. 相互均衡 및 牽制를 主軸으로한 4大國關係는 基本的으로 現狀維持를 指向하고 있기 때문에 4大列強은 韓半島現狀의 打破를 意味하고 相互關係에 不安하고 不安定한 與件을 造成할 수 있는 韓國統一에 否定的이며 逆機能的인 作用을 할 것이라고 評價할 수 있다.

韓國의 統一은 軍事的인 手段과 非軍事的인 方法으로 達成할 수 있다는 論理的 前提를 提起할 수 있으나, 強大國들의 態度는 兩者의 境遇에 있어 共히 否定的인 態度로 一貫할 것이라 予想된다.

即 軍事的인 方法에 依한 統一에 對하여 強大國들은 熱核戰爭을 招來할 수 있는 狀況을 未然에 防止하기 爲하여 또 可能的 犧牲과 負擔을 極小化하기 爲하여 反對할 것이며 北韓單獨 또는 偶發的인 狀況에서 勃發된 戰爭狀態에 對해서도 美·日은 韓國을 中·蘇는 北韓을 各各 支持·支援해 줄 것이지만, 이러한 行動은 限定的 性格을 지니고 戰爭目標은 軍事的 統一 아닌 戰爭狀態 以前으로의 復旧에 있을 것이라고 想定할 수 있다.

非軍事的인 方法에 依한 統一에 對해서도 韓國統一이 갖어 올 수 있는 未知의 政治的 狀況과 軍事的 結果를 考慮하여 強大國들은 逆機能的 作用을 하게되기 쉽다고 말 할 수 있다.

따라서 強大國의 政策과 相互作用面에서 본 韓國統一은 圧倒的

으로 逆機能的 側面이 強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4強의 作用을 감안한 우리의 統一政策은 그들의 政策이 "不安한" 統一보다는 現狀固定을 爲한 緊張緩和에 있기 때문에, 이에 対応한 우리의 統一政策은 長期的인 眼目에서 慎重하고 緩慢하며 또 伸縮性 있게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統一努力도 戰爭抑制, 北韓의 變質誘導 그리고 統一에 對備한 能力培養의 3側面에서 傾注되어야 할 것이다.

가. 北韓의 赤化統一企圖의 抑制 및 沮止

우리의 窮局的인 目標은 自由·民主·平和統一에 있지만, 最少限 우리는 北韓의 赤化統一의 企圖를 抑制·沮止하는 對內外的 努力이 集中되어야 할 것이다.

- ① 直接 또는 第3國(특히 美國)을 通하여 蘇聯 및 中共과의 韓半島에서의 戰爭抑制에 關한 對話를 넓히고 또 이에 對한 양해가 成立되도록 外交的 努力을 傾注하여야 할 것이다.
- ② 이와 같은 外交的 努力과 併行하여, 韓·美 安保體制를 維持·強化하므로서 對北韓軍事的 抑制 및 防衛力을 確保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美國의 強力한 對韓防衛의 거듭된 闡明, 駐韓美軍事力 특히 空軍의 長期駐屯, 韓國軍 現代化 計劃의 早期實現, 有事時의 來援 및 支援체제의 確立의 辯究가 必須的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有事時 日本의 直接的인 對韓軍事支援을 期待할 수 없으므로

로 最少限 在日美軍基地의 韓國作戰을 爲한 使用이 可能토  
록 事前體制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④ 上記의 對外的 努力과 併行하여 北韓의 直接 또는 間接侵略을 抑制·粉碎할 수 있는 對內的인 政治 및 軍事體制를 強化·維持하여야 할 것이다. 特히 4大國의 力關係를 감안한다면, 戰爭抑制力의 培養과 間接侵略에 對處할 수 있는 政治·社會體制의 構築은 先決的인 要件이라고 할 수 있다.

나. 北韓의 變質誘發을 爲한 努力의 傾注

北韓으로 하여금 武力赤化統一의 企圖를 포기케하고, 南北間의 文化的 격차를 縮少시키며, 長期的인 統一達成을 爲한 接近을 円滑히 하기 爲하여는 好戰的인 北韓의 變質誘導가 時急한 問題라고 아니 할 수 없다.

- ① 現今의 國際的 趨勢로 보아 "두개의 韓國觀"의 擴大 및 美國 및 日本을 包含한 餘他諸國의 對北交流의 摸索은 不可避하므로, 이를 無條件 沮止시키기 보다는 이를 能動的으로 北韓의 變質試圖에 利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美國 및 日本의 對北韓交流 또는 對話는 韓國과 緊密한 協調와 調整을 通하여서만 進行되도록 하는 協議體制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對北韓 經濟交流에 있어 北韓의 戰力增強과 經濟發展에 크게 奇與할 수 있는 戰略物資의 輸出과 政府資金의 使用은 最少限 沮止하여야 할 것이다.

- ② 南北對話(國際會議, 調節委, 赤十字等)을 最大限 活用하여

그들의 外界에 對한 認識을 스스로 變質시키도록 하는 緩慢하고 間接的인 努力이 傾注되어야 할 것이다.

③ 南北間의 經濟交流의 推進으로 또 西方諸國과 北韓과의 經濟交流를 利用하여, 北韓經濟의 對南 및 對亞依存度를 提高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④ 北韓의 「유엔」參與가 不可能하게 될 境遇, 이를 利用하여 그들로 하여금 「유엔」의 權威와 權能을 認定케 하고 나아가서는 「유엔」을 통한 北韓社會의 開放化에 漸次的인 努力을 傾注하여야 할 것이다.

⑤ 強大國의 政策과 國際的 推移로 北韓의 對外的 進出 特히 「유엔」參與 可能性에 對備하여 그들의 軍縮提議, UNCURK 解体主張, 駐韓美軍의 撤収要求에 對하여 國際社會가 납득할 수 있는 効率的인 對策을 時急히 마련 하여야 할 것이다. 特히 北韓의 眞意를 모르는 中立國等에 呼訴力이 많은 軍縮提議에 있어서는 그들이 꺼려하고 또 그들이 受諾하였을 境遇 北韓社會의 開放을 不可避하게 만들 수 있는 確認體制等은 提議할 수 있을 것이다.

다. 長期的인 統一接近을 爲한 國力의 培養

長期的으로 보아 우리의 國力이 副期的으로 伸張되었을 때에, 北韓은 武力挑發이 非現實的이라고 判斷하게 될 것이고, 友邦의 韓國에 對한 重要性和 價値에 對한 認識도 높아질 것이며, 統一을 爲한 條件이 成熟되었을 때 北韓의 主張과 立場을 壓倒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北韓의 戰爭挑發抑制·沮止 및 北韓의 變質誘導를 爲한 努力과 併行하여 우리의 綜合国力의 完熟에 注力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努力은 外交, 国内政治, 經濟 및 軍事의 諸要素의 健全하고 綜合的인 것이어야 할 것이다.

外交面에서는

① 強大國의 韓半島 現狀凍結의 制度化와 自主的 統一을 爲한 國際的 沮害要因의 除去 및 北韓의 두개 韓國觀의 現實化를 爲한 外交活動에 對處하고 우리의 自主的 統一與件의 조성을 爲하여 長期的이고 能動的이며 伸縮性있는 外交政策을 樹立한다.

② 이러한 長期的이고 能動的인 外交政策의 推進을 爲하여 外交官의 資質을 高度로 向上시키고 適材適所에 配置함은 물론 對外活動費를 增加하여 公館活動의 效率化 및 積極化를 期하고 各地域別 研究活動을 적극 推進하는 동시에 專門家를 養成하여 活用한다.

經濟面에 있어서는 北韓에 比하여 經濟的 優位를 堅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爲하여

① 各 教育機關이나 研究機關에 南北韓 經濟力의 比較·分析을 專担하는 研究所를 設置토록 하여 南北韓 經濟力의 伸張動向을 國民에게 周知시켜 北韓에 比하여 經濟的 優位를 堅持할 수 있도록 經濟開發 參與意識을 鼓吹시켜야 할 것이다.

- ② 經濟計劃을 繼續 推進하되 이와 併行하여 統一에 對備한 「單一經濟圈」 定立을 위한 「매스터·플랜」도 構想하여 決定的 時期에 이를 實現하기 위한 主導權을 갖도록 한다.
- ③ 持續的인 高度成長을 이룩하되 經濟의 內實을 期하기 위한 先行要件으로서 安定的인 成長基盤이 造成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成長效果가 國民에게 均等하게 미칠수 있게 되고 資源의 效率的인 配分으로 經濟力의 充實化를 期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北韓이 自立的 經濟土台를 確立하려는데 血眼이 되고 있다는 點을 勘案하여, 急進的인 輸出伸張을 戒하되 外貨稼得率이 높은 國內資源開發과 輸入代替産業을 育成·開發함으로써 外貨를 節約해야 하고 對外負債를 輕減해야 할 것이다.
- ⑤ 經濟開發을 위한 投資方向은 階層間, 産業間, 地域間的 所得 隔差를 解消하려는데에 優先的으로 活用되어야 하며 그리하여야만 国力의 底力을 培養하는데 汎國民的으로 參與할 수 있는 機會가 保障될 것이다.

軍事面에서는,

- ① 對北韓 抑制力의 確保를 爲한 自主國防態勢의 確立을 期하기 위하여 裝備現代化 計劃을 積極 推進함과 동시에 防衛産業의 戰時轉換體制를 確立하고 技術 및 財政支援으로 이를 育成시킨다.
- ② 長期的 國防目標를 設定하고 獨自的인 軍事力 使用計劃을

樹立하여 우리 自主国防能力에 알맞는 軍備目標을 設定하고 이를 運營, 維持, 發展시킬 수 있는 長期的 軍事力 運營計劃을 마련한다.

- ③ 对北韓 体制競争의 長期성과 国防建設과 經濟建設의 兩立性을 감안하여 軍機構 運用상의 非能率을 除去하고 戰鬥力の 極大化를 期할 수 있도록 效率的이고 經濟的인 軍育成 方案을 討究 한다.

政治 社会面에서는

- ① 國際緊張緩和와 南北對話에 따른 國民의 对共警覺心の 解弛와 國民의 無分別한 統一早期實現熱望과 統一論議를 위요한 國論의 分裂을 막고 올바른 時局觀과 使命感을 가질 수 있도록 國民을 啓導하기 爲하여 現政府와 社會의 모든 機構와 組織을 活用한다.
- ② 健全한 統一政策形成의 効率化와 國論統一을 期하기 爲하여 汎國民의 統一協議機構를 結成하고 各界 各層의 多樣한 情報源을 組織化하여 活用토록 한다.
- ③ 社會的 不条理의 果敢한 拔本塞源, 公正한 分配體系의 確立, 維新的 社會·氣風의 振作을 통한 國民同一體感의 形成과 政治, 經濟的 諸般 脆弱性을 除去하여 民主力量을 強化함으로써, 北韓의 間接侵略의 素地를 除去하도록 한다.

